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나눔이 즐거운 ART-POOL 풀장환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757 성남아트센터
www.sncf.or.kr / www.snart.or.kr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ArtPool
풀장환상

풀장환상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나눔이 즐거운 ART-POOL 풀장환상

발행인 이대엽 · 이종덕
편집인 노재천
기획총괄 박승현
기획진행 이종필
발행처 성남문화재단
www.sncf.or.kr / www.snart.or.kr
발행일 2008. 2

글•사진 도호연, 안정혜
디자인 도우리
인쇄 노란상자

ⓒ성남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목차

들어가기
8 프로젝트북을 발간하며
10 예술감독의 글
18 풀장환상 오프닝

수다공방
26 씨네풀평론클럽
32 풀장댄스
36 나만의 책만들기
42 물레를 돌리자
48 풀장이 환상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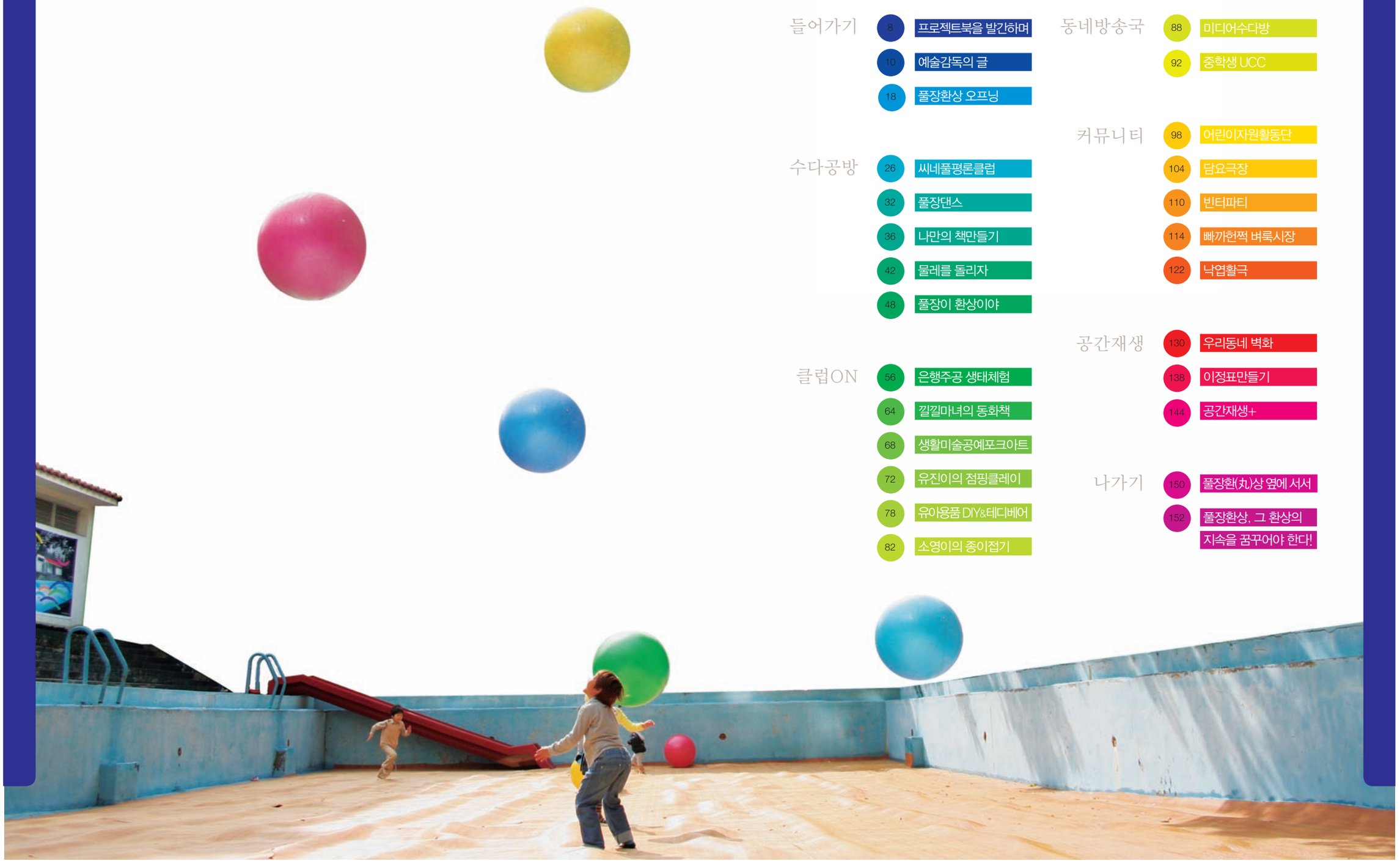
클럽ON
56 은행주공 생태체험
64 낄낄마녀의 동화책
68 생활미술공예포크아트
72 유진이의 점핑클레이
78 유아용품 DIY&테디베어
82 소영이의 종이접기

동네방송국
88 미디어수다방
92 중학생 UCC

커뮤니티
98 어린이자원활동단
104 담요극장
110 빈터파티
114 빠까헌쩍 벼룩시장
122 낙엽활극

공간재생
130 우리동네 벽화
138 이정표만들기
144 공간재생+

나가기
150 풀장환(丸)상 옆에 서서
152 풀장환상, 그 환상의 지속을 꿈꾸어야 한다!



은행2동 주공아파트 '풀장환상' 프로젝트북을 발간하며…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시민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문화적 매개체인 공공예술을 통해 문화적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창작활동을 자극하여 마을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의 역점 추진과제인 5대 정책사업 중 하나인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성남시의 공간유형을 골목길, 아파트, 공단, 시장, 상가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특성화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 골목길 유형인 태평4동에서 '예술, 태평동에서 노닐다' 프로젝트는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타 지자체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2007년 프로젝트는 은행 2동 주민들이, 예술가 및 행정가와 함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생활 속에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마을을 대표하는 문화상징, 벽화, 놀이공간, 쉼터 등의 문화공간 조성 사업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동 단위의 생활 속 문화환경을 개선 한다는 큰 틀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아파트 유형으로 추진한 은행2동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도시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는 '아파트'라는 공동주택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높이고 문화생활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제시한 의미 있는 계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은행주공 문화공동체 프로젝트는 주민 스스로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해서 주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주민의 직간접 참여와 문화공동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발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공모를 시작으로 추진된 이번 프로젝트는 2007년 5월 은행주공아파트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한 후, 공공예술가들의 기획안을 공모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예술가들은 무더운 여름날에도 아파트단지 이곳 저곳을 탐방하며 찾아낸 자료를 바탕으로 9월 15일 정식으로 프로젝트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수영장을 문화공방으로 이용한 프로그램 외에 "은행주공 생태탐험", "미디어수다방"과 "중학생 UCC", "나만의 책 만들기", "낄낄마녀의 동화책", "씨네풀 평론클럽", "풀장이 환상이야", "물레를 돌리자", "풀장댄스"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주민들의 높은 기대와 관심 속에 진행 되었으며, 문화공동체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능력을 가진 주민들도 많이 발견하여 '점핑클레이', '테디베어', '포크아트', '종이접기' 등 마을의 많은 주민들이 자신의 숨은 예술적 끼를 재발견하고 그 재능을 마을주민과 함께 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짧고도 길었던 2007 은행주공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마을 잔치 "낙엽활극"은 낙엽이 다 저물고 겨울을 알리는 시점에 개최되었지만 가을날 펼쳐진 여느 타 주민축제보다 더 많은 주민 관심 속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제 은행주공아파트는 어느 아파트 단지보다 문화의 향수가 넘쳐 흐르는 문화예술의 마을로 발전될 것이며 문화마을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동네로부터 만들어 가는 문화의 향기가 넘치는 성남을 주민 스스로 창조해 나가는 기반을 마련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할 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경험하지 못한 많은 점들을 더욱 탄탄한 성과로 이어갈 수 있는 소중한 발판으로 삼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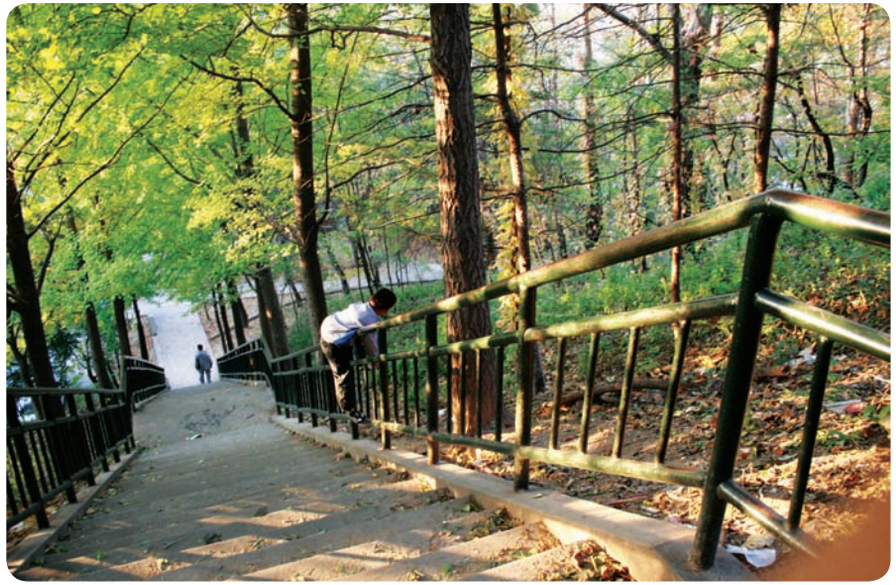
생활을 넘는 생활

박찬국 | 예술감독. 밀머리 미술학교

103계단에서 만난 친구 '숑숑'

은행주공 아파트 103계단은 좁고 가파르지만 양 옆에 은행나무를 주욱 거느리고 계절계절 운치를 뽐낸다. 그곳에 작업 때문에 드나들며 갈 때마다 '숑숑'친구를 만났다.
아파트 인근 주택가에 살고 있는 초등4학년인데 언제나 혼자서 계단 난간을 타고 논다. 얼마나 계단을 신나게 잘 타는지 마치 능숙한 봅슬레이 선수가 몸을 움직이며 속도 조절을 하는 것처럼 경쾌하다. 은행나무에 머리를 부딪치지 않도록 고개를 들었다 숙였다 하면서 콧노래라도 부르는 듯 잘도 내려간다. 그야말로 숑숑쇼~ ㅇ이다.
그의 자세를 보면 한쪽 다리를 쇠 난간위에 꺾어 걸치고 다른 쪽 다리로는 체중을 조절하면서 완벽하게 균형을 잡고 있다. 하루 네 번쯤 난간을 타며 논다니 가히 달인의 경지에 오른 게 틀림없다. 나와 우리 스텝들은 흉내조차 어려웠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던 아저씨가 이 광경을 보고 혼 내키는 일도 있었다.
동네 어른으로서는 마땅한 일일 수도 있었으나 '숑숑'의 재주로 보아 난간타기를 포기하고 걸어 다닌다는 것은 오히려 시간과 재미와 훌륭한 능력 하나를 버리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일에 익숙해서일까 '숑숑'은 꾸중은 공손히 듣고 올라와서 아무렇지 않게 다시 난간 타기를 즐긴다.

일본의 교토대학에서 침팬지 연구를 하는 한 교수는 "흔히 '진화'라고 부르는 과정이 우리가 가진 약점을 극복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사실은 갖고 있는 능력들을 상실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석기 인류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침팬지들은 높은 나무에 오를 수 있는 능력과 일별하는 것만으로 본 것 모두를 기억하는 '사진 기억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인간에게도 있었던 능력이지만 진화 과정에서 버려진 것으로 추정한다. 숑숑 친구는 우리가 작업에서 쓰고 버린 종이테이프를 모아 피구 공 비슷하게 만들어서 '혼자서' 재미나게 놀기도 하였다.



왜 그가 혼자 놀 수밖에 없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아이들과 섞이지 않은 탓에 정해진 방식으로 맞춰 놀기보다는 자기만의 놀이를 찾아내고 나름 신나게 즐기는 것이다. 지금에 비하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옛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히려 자연이나 주변 사물들과 다양하게 만나며 논다.

풀장놀짱

이번 풀장환상 프로젝트는 미리 준비된 프로그램에 의해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의 조건과 환경 안에서 '발견하고 즐기는 것'이 목표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되었던 프로그램들은 주민들이 체험적으로 참여하기 좋은 '마중물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버려진 공간을 쓸고 닦고 칠하고 필요한 거의 모든 물품을 만들어 가는 과정 자체가 진짜 프로그램이었고, 수영장

탈의실이 강의실, 공작실, 놀이터가 되고 아이들의 아지트, 카페, 수다공방, 영화관, 아틀리에, 벼룩시장, 파티장이 되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이었던 공간, 그런 시간들이었다.
참여자들은 갑자기 벌어진 야단 때문에 어색하고 어리둥절하기도 했지만 이내 스스로도 즐겁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비밀의 문을 연 것처럼 들뜬 놀이판을 만들었다. 알고 보면 아파트 안에 거의 모든 것이 다 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니 전문가도 있고 예술가도 있고 교육자도 있다. 아니 따로 있다기보다는 누구나가 서로 선생이 될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런 것을 확인하는 기회였다.
사람만이 아니라 공간이나 자원도 마찬가지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움직여보면 재미난 공간, 재미난 물건 천지다. 특히 은행주공 아파트는 훌륭한 생태 환경과 활용할만한 공간이 넘쳐난다. 예술감독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수많은 자원이 있음을 환기하고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물 없이 비워진 채 잡초 우거진 풀장은 경직된 시설 위주의 놀이터와 달리 가장 안전하고 복합적인 무장애 놀이터가 되었다. 이 중독성 강한 놀이터에서 놀아본 아이들은 스스로 청소도 하고 다른 프로그램의 열렬한 참여자가 되었으며 우리 친구 숑숑처럼 가까이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하며 놀았다. 마법사로 변장하고 프로그램 홍보에 나서는 퍼포먼스를 즐기고 겁 없이 벼룩시장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동네 할아버지와 옆집 아주머니가 국가 대표급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마침내 주민들 스스로 여러 강좌를 개설하면서 아이들도 자신이 알고 있던 소소한 취미생활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마치 예전부터 해왔던 당연한 일처럼 스스럼이 없어졌다. 아이들이 가장 빠르게 반응하고 철없는 어른들이 그 다음으로 반응하고 아파트를 대표하는 철든 분들은 제일 늦고 미지근하게 반응하였다.

아파트 동네 생활과 문화공동체 프로젝트

은행주공 아파트 홈페이지를 방문했을 때 맨 위에 올라있는 글은 '아파트 값 두 배 올리기'였다. 놀랍게도 최근 몇 년 사이 4~5배나 올랐다는데 아직도 배가 고픈 것이다.
같은 단지 안에서 생활하려면 이해관계가 겹치는 게 많고 집값 담합 같은 부정적인 것 말고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것도 무궁무진 많다. 이미 사람들은 많이 협력하고 살지만 풀장환상 프로젝트가 암시한 것처럼 문화와 교육, 생태, 나눔 공동체의 가능성을 무한하게 갖고 있다.
주거상품으로의 가치에 한정된 아파트를 생활자의 관점에서 다시 보는 작업은 지금 여기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겠지만 예술가의 삶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가장 가까운 생활공간이며 동시대의 비평적 이슈와 한국 사회를 읽는 명징한 코드들이 얽혀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공공 프로젝트가 처한 현실의 중첩된 모순을 드러낸다.
예술을 통해 하나의 솔루션을 찾으려는 노력은 사람들의 잠재된 가능성에 자극을 주어 원래의미의 삶의 차원을 복원하려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놀이, 예술, 교육, 축제 등 문화의 통합적 주체적 기능을 회복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환기한다. 그러나 외부에 사는 작가들은 그것을 환기하는 것 이외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기가

매우 힘들다. 짧은 시간에 일방적으로 짜여진 일정은 주민 스스로가 지속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어렵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과 제도의 제약은 많은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만든다.
작가는 더 비평적으로 현실을 읽어야 하고 드러나지 않는 모순들을 엉뚱한 각도에서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한다.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력의 틀을 짜야 한다. 여기서 엉뚱하다는 것은 이성적 논리만이 아니라 직관과 감수성에 의한 통찰, 상상력을 의미한다.
수많은 풀장 페인을 양산하고 속절없이 문을 닫으면서 우리 스텝들은 무력감을 느꼈다.
프로젝트를 유치했던 주민조직은 업무가 가중되는 것을 걱정하고 주최기관은 행정적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후속 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프로젝트 팀에게는 어떤 권한도 지원도 주어지지 않는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잘하면 10개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잘못하면 1개도 유지하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다.

한 발 더 나간 제안; 예술 생활 협동조합

피에르 레비는 '집단 지성'에서 "서구의 예술현상이라는 것은 한사람, 즉 예술가가 어떤 특별한 대상이나 메시지, 즉 작품을 만들고 서명을 한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수신자, 관중, 비평가 등)이 지각하고 감상하고 읽고 해석하고 평가한다. ...
전달자와 수신자는 확연히 구분되고, 그들 각자의 역할은 완벽하게 지정된다. 그런데 새로이 떠오르는 기술-문화적 환경은 전달과 수신, 창작과 해석 사이의 구분을 모르는 새로운 유형의 예술의 발전을 야기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그런데 연루 예술은 열린 작품이든 무한한 작품이든, 더 이상 어떠한 작품도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것은 과정을 부각 시키고, 독립적인 생명들에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부여하며, 한 세계의 성장과 주거를 향해 이끈다. 그것은 우리를 창조적 사이클 속에, 살아 있는 환경 속에 들어가게 하는데, 우리는 언제나 이미 이 환경의 공동 저자들이다. 진행 중인 작업 Work in progress, 연루 예술은 일로부터 진행 쪽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시킨다. 작업들은 어떤 순간, 장소 또는 집단의 역동성에 관계될 뿐 더 이상 사람과는 무관하다. 그것은 작가의 서명이 존재하지 않는 예술이다."라는 구절도 덧붙였다.

나는 아파트와 같은 일정 영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 '예술생활 협동조합'을 만들었으면 한다.
스스로 주체가 되어 다양한 예술을 즐기기 위함인데, 즐긴다는 것은 레비의 말처럼 생산-소비의 경계를 넘고 생활과 예술의 경계도 넘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활을 넘는 생활'이라고 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다양한 감각과 지성으로 쌓아올린 경험들을 공유하며 그 덕에 전혀 새로운 경험들을 추가해 나간다. 예술가는 마중물을 넣고 여러 경우에 촉매 혹은 매개 역할을 한다.
예술생활 협동조합은 '문화생활 협동조합'과는 차원이 다르다. 감상이나 해석보다 비평적 시각을 우선한다.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솔루션이라기보다는 삶의 성찰과 고양을 추구한다. 제도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작은 힘들을 모아 자체운영 한다. 이것이 이번 사업을 기획한 문화재단의 바램이기도 할 것이다.
'예술생활 협동조합'은 더 강한 몰입을 요구하기 때문에 유지하기가 쉽지 않지만 실제로는 어설픈 실용주의 논리를 넘는 강력한 파워를 자랑할 것이다. 커뮤니티 예술의 논쟁에 등장하는 작가주의 이슈나 수용자 이슈는 이 안에서 포말(泡沫)일 뿐이다.
웹 2.0 시대이고 생산-소비의 접점이 무화 된다고 하여도 기왕의 패러다임을 넘기는 쉽지 않다. 더 많은 생활의 현장에서 패기와 유머 넘치는 실천이 필요하다.
작가주의가 아방가르드를 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면 나는 지금 '예술생활 협동조합'보다 더 센 아방가르드를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풀장환상

01

풀장환상 오프닝

3개월간 은행주공아파트를 올록볼록 생글탱글하게 만들기 위한
풀장환상 프로젝트의 출발을 알리는 자리.
은행나무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동네 한 바퀴를 돌아
풀장환상의 대문을 활짝 열었다.
새롭게 달라진 풀장을 처음 만난 은행주공 사람들의 얼굴빛은 빛났다.
나눔과 재생, 그리고 교류의 무지개 빛깔을 향해,
출발!

일시
2007.09.15 토 오후 3시

사전 행사

참여카드 작성	우리동네는 이런색! 내 마음 보태기 프로젝트

본 행사

길놀이	한예종 프로젝트 돌곶이
사전투어 참가자 소감	117동 할아버지와 동네아이들이 은행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영상과 이미지 보기
소개, 인사말	성남문화재단과 동네분들
사업설명회	예술감독 박찬국
본 공연	한예종 프로젝트 돌곶이 – 우리 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를 이야기로 풀어내는 판소리 공연 및 사물놀이 공연
아트–풀 놀이터 오픈	풀장 안에 짐볼을 주민들이 함께 던져 넣고 맨발로 풀장 안으로 들어가서 자유롭게 즐기기

풀장환상, 둥글게 기지개를 켜다

여름의 열기가 아직 채 가시지 않은 9월, 여름내 은행주공을 누비며 발걸음을 익히다 드디어 풀장환상의 오픈이 다가왔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계단, 어둠이 짙게 드리웠던 벽, 먼지 쌓인 공간을 새롭게 단장하는 밑 공사가 먼저 진행되었다. 페인트 칠로 단장하고, 끝이 보이지 않던 청소도 마무리되고, 전등을 새로이 달아 사무 공간으로 사용할 방도 만들었다. 풀장 한 편에 쌓여있던 아이들이 수영을 배울 때 쓰던 스폰지 키판을 재활용해 멋진 '풀장 환상'의 간판을 달자 그 실체가 그제야 조금씩 실감이 나기 시작했다.

떡이며 음료며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몰라 난감해 하던 스탭들이 부녀회에게 구원을 요청하자 앉은 자리에서 단번에 문제가 술술 해결되었다. 역시 잔치 준비에 부녀회 어머니들의 노하우를 누가 따를 수 있으랴. 은행 주공 주민인 철물점 내외분도 밤낮으로 나서 풀장 공사와 관련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떠맡아 해결해 주셨다. 풀장의 뜨거운 재탄생을 위해 늦은 밤까지 가까이에서 함께 은행주공 주민들이 산파역을 자처해 주신 것이다.

15일 오후, 사물놀이 소리가 아파트를 휘젓고 떠들썩한 소리에 아직 소식을 접하지 못한 주민들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들었다. 삼삼오오 가족들이 손을 잡고 풀장에 들어섰고 호기심에 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금새 풀장 마당을 메웠다. 아이들은 풀장에서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에 신청도 하고 새롭게 만들어 해보고 싶은 것에 대한 의견도 남기고, 작은 나무 조각에 소망을 담은 그림을 그려 풀장 벽에 하나씩 붙이기도 했다.

풀장에 짐볼을 던져 넣자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풀장이 떠나갈듯 커졌다. 도시 속에서 커다란 공을 가지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되던가. 색색깔 공들이 둥그런 희망을 담은 듯 풀장을 넘실거렸고 왁자지껄, 반가운 담소와 축하가 이어지는 사이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도 둥글게, 그렇게 시작되었다.

풀장환상 그 첫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 가지를 잘라 그 위에 풀장에 대한 기대와 꿈을 담아 보는 '마음 보태기' 행사가 열렸다. 이날 부터 풀장이 문을 닫을 때가지 은행 주공 아파트 주민들의 나무 조각이 차츰 차츰 늘어나 풀장 벽을 한가득 채워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수다공방

01 씨네풀평론클럽
02 풀장댄스
03 나만의 책 만들기
04 물레를 돌리자
05 풀장이 환상이야

01

씨네풀평론클럽

씨네-풀은 함께 영화를 보며 주민들이 교류를 나누고
문화에 대한 관심을 넓혀보고자 한 시도였다.
아쉽게도 참가자가 적었지만 씨네-풀 클럽 회원들은
풀장에서 열린 담요 극장 상영회에 영화도 선정하고 마지막 낙엽활극 축제에서도
작은 극장을 운영해 풀장환상의 가장 적극적인 동반자가 되었다.
기분좋은 만남, 씨네풀 평론 클럽은 프로젝트가 끝난 이후에도
회원들이 직접 계획하고 운영해 모임을 지속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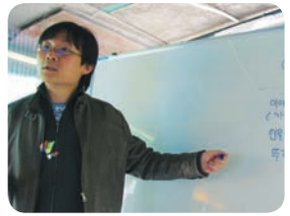
일정
2007.10.10~11.7 (매주 금요일 5회)
강사
김광복
참여
임채영, 이유화

씨네풀 영화 사랑 이야기

씨네풀 평론클럽은 단편영화 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이며, 대학에 영화이론으로 출강도 나가시는 김광복 선생님과 함께 진행한 영화 사랑 모임이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접근성도 높다보니 많은 주민들이 몰려들 거라 예상했는데, 기대와 달리 임채영, 이유화 두 분만 참여했다. 아이들 키우고 직장에 다니느라 주말이 아니면 짬이 잘 나지 않는 은행 주공 아파트 주민의 생활이 읽혀지는 대목이었다. 그러나 두 주부는 단 한 번의 결석도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풀장에서 열리는 다른 행사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 열혈 멤버가 되어 주었다.

주부들은 아이들 키우다 보니 한 달에 한 두 편정도 밖에 영화를 보지 못하게 되고, 그나마 아이들 영화만 보게 된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래서 영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타나는 것이 즐겁다는, 그래서 싸우는 것조차 즐겁다는 김광복 선생님과의 만남은 학창시절 영화에 대한 열정이 되살아나는 기회였다. 씨네풀이 있는 시간이면, 임채영, 이유화 두 주부는 따뜻한 커피와 간식을 준비해 오셨다. 그들은 영화전문가인 김광복 선생님의 기를 죽일만한 통찰력, 10대가 울고 갈만한 집중력, 반짝이는 눈빛과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는 포용력까지 완벽한 학생들이었다.

쇼트와 신에 대해서 배운 후 영화 프레임 안에 있는 모든 요소를 말하는 미장센, 쇼트의 연결을 일컫는 몽타주 같은 영화 용어들을 배우고 적극적으로 영화를 해석하고 개입하는 관객의 태도를 체험하면서 고전영화와 모던 영화, 캐릭터와 영화 속에 드러난 사회상 등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다.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전함 포템킨', '라쇼몽', '베티블루' 그리고 '아비정전' 같은 명작들을 통해 한 장면 한 장면, 선생님의 섬세한 안내와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의견들이 오가는 동안 5주가 흘렀다. 헤어짐이 아쉬워 김광복 선생님도 한두 달에 한번쯤은 함께 영화를 보자는 주부들의 제의를 기쁘게 받아들이셨다. 씨네풀 멤버들은 선생님이 없어도 영화사에 남은 영화들을 좇아보기 같은 아이디어를 제안하면서 동아리 모임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은행주공의 문화 소모임으로써 앞으로 지속될 씨네풀 평론클럽은 작지만 소중한 불씨를 간직한, 유쾌하고 즐거운 만남이었다.



처음시간에는 영화를 보는 두 가지 방법인 미장센과 몽타주에 대해 배웠다. 미장센(Mise-en-scene)은 프레임 안에 놓여있는 모든 영화적 요소를 이야기한다. Shot 안의 모든 요소가 스토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관객이 공부한 만큼, 분석하려는 만큼 영화에 대해 많이 볼 수 있다. 반면 몽타주는 하나의 shot은 의미가 없으며, 여러 shot이 조립되어 야만 의미를 지닌다는 개념이다. 미장센 분석으로 이명세 감독의 1999년 작 『인정사정 볼 것 없다』를, 몽타주에 대한 이해로는 세르게이 M. 에이젠슈타인 감독의 『전함 포템킨』을 감상했다.

씨네풀은 10월 26일 금요일 밤 씨네풀 담요극장을 열기도 했다. 씨네풀 평론 클럽에 멤버 확충이 안 되는 것을 고민하다가 풀장에서 함께 영화를 보는 이벤트를 개최하기로 아이디어를 모은 것이다. 영화는 강아지와 어린이의 사랑을 다룬 '마음이...'로 결정되었고, 어린이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난로 땔감을 준비하고, 홍보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등의 준비를 했다. 씨네풀 멤버확충에는 실패했지만, 담요극장에 2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와 성황리에 끝났고, 씨네풀 참가자들의 어깨도 으쓱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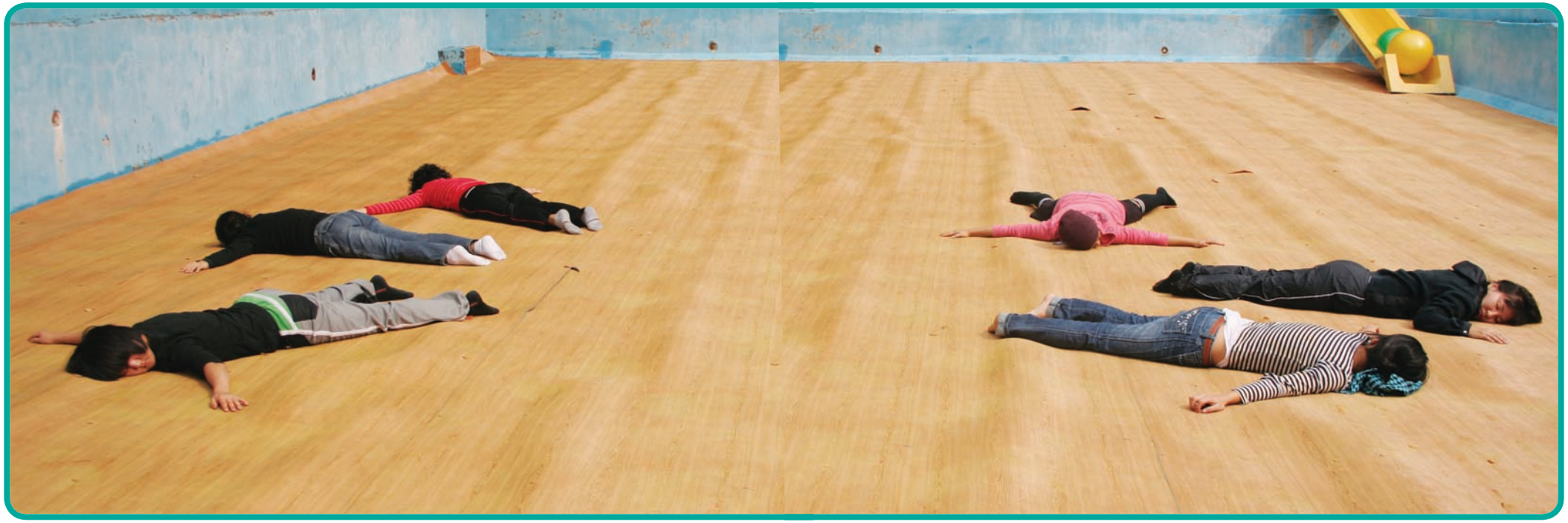
12월 1일 낙엽활극 축제에 씨네풀 클럽은 워크숍방에 씨네풀 극장을 준비해 영화상영회를 개최했다. '모던 타임즈', '트루먼 쇼' 등 회원들이 선정한 영화를 상영하면서 앞으로 지속될 씨네풀 동아리를 홍보하는 자리였다. 몇몇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영화모임을 해보자는 의지를 보태왔다. 풀장환상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는 끝이 나더라도 동네 소모임으로 계속될 씨네풀 클럽의 내일이 기대된다.

인터뷰

씨네풀 평론클럽 임채영, 이유화씨

제목에 '평론'이란 단어가 걸려있어 왠지 어렵고
어색했다는 임채영씨는 학창시절 때 작가주의 영화를
즐겨보던 시네필(cinephile)이었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두 세 달에 한번쯤 밖에 영화를
못 보게 되었고, 요즘에는 '라디오 스타' 같이 즐겁고
편안한 영화를 주로 즐기게 되었다고 한다.
첫 수업시간 김광복 선생님이 내 인생의 영화를
꼽아 보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라는 질문에 그녀는
터키 감독, 일마즈 귀니의 '욜'이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영화를 택했다.
"악명 높은 터키 감옥의 재소자 다섯 명의 귀향
이야기를 담은 이 영화는 감독이 감옥에서 각본을
쓰고 제작한 작품이에요. 영화 속에서 한번 결혼을
했다가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되는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전통사회의 가치관 속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 진리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님을 생각하게 했어요."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를 묻자
"책을 읽는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내가 가지 않은 길, 다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라며 웃는다.
수업을 함께한 이유화씨와 가까워지고
풀장 스텝들과도 정이 든 임채영 씨는
씨네풀 평론 클럽의 경험을 시작으로 소박한 영화 사랑
모임을 지속적으로 꾸릴 예정이다.

아이들이 어려, 아이들 영화 말고는
보기 어려워졌다는 이유화씨는
소피아로렌을 좋아하는 로맨티스트다.
이유화씨는 앞으로 아이에게 영화를 읽어줄 수 있는,
영화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싶어 클럽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내 인생의 영화로 저는 '죽은 시인의 사회'와 '피아노'
를 꼽았어요. '죽은 시인의 사회'는 제 학창시절이
떠올라 공감했던 영화이구요,
'피아노'는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이
가장 아끼던 피아노마저 손에서 놓아버리는 장면을
보고 사랑이 소유가 아님을 깨닫게 해준 영화에요."
참여한 인원이 두 명이어서 다양한 영화장르와
영화정보를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지 못해 아쉬웠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렇지만 이번 모임을 통해 영화를
만든 의도가 하나일지라도
보는 입장에 따라 의미는 엄청나게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배웠다고...
그녀는 소수정예 멤버이지만 영화사에 남은
영화들을 차례로 감상하는 소모임으로
지속하고 싶다는 아이디어를 냈다.
빈터파티, 벼룩시장과 나만의 책 만들기,
그리고 마지막 축제까지 남편과 아이랑
온 가족이 함께 참여했던 그녀는
최고의 풀장 매니아 가족이었다.



02

풀장댄스

자신의 몸을 발견하고 자신의 몸과 만나 놀아보는 시간.
재즈댄스나 스포츠댄스 같이 어려운 테크닉은 필요치 않다.
나의 몸과 마음에 귀 기울이고 나아가
타인의 몸과 만나는 편안한 여행인 풀장댄스는
형식에서 탈출해 자신의 몸을 음악에, 그리고 느낌에 맡길 뿐이다.
눈을 감고 파트너에게 몸을 맡긴 큰언니들은 쑥스러움에 웃음보가 터졌지만,
곧장 서로를 몸으로 느끼며 자연스럽게 즉흥 이인무를 이루어 냈다.

일정
2007.10.13, 14, 20 (3회차)
강사
김정현, 김정연
참여
박현욱, 이기남, 윤미숙, 김영희, 신혜선
박유심, 송재금, 승납순, 유성록, 한연옥

큰언니들의 으랏차차 몸나들이

풀장댄스는 몸으로 숨 쉬고 느끼고 서로 관계를 맺는 흔치 않은 경험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시작 때부터 꾸준히 참여하는 참석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감이 있었다. 그래서 매회 늘 새로운 참여자들로 구성되어 즉흥 춤에 대한 정보와 이해를 다시 받아들이게 하고 시작해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반복되었다. 막춤이나 에어로빅, 건강체조 등, 정해진 춤 밖에 몰랐던 주부들은 즉흥 춤을 다소 이해하기 힘들어하였다. 그러나 이왕 한자리에 모였으니 '한번 열심히 해보자! 배워보자!' 라는 열정으로 낯설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느낄 수 있었다.

세상 속에서 무거워진 몸과 마음을 풀기 위해 우선 양말을 벗은 다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돌리고, 늘리고, 구부리고를 반복하였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몸이 따뜻해지고, 몸처럼 마음도 유연해짐을 느꼈다. 30여분의 워밍업 후, 큰 언니들은 '개운하다~'며, 풀장댄스의 즉각적인 효능에 감탄하였고, 진작 풀장댄스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였다. 다음은 부드러운 음악에 맞춰 선생님의 간단한 설명과 단순한 동작들을 따라하며 즉흥 춤의 세계로 빠져들어 갔다. 동작을 따로 외워 익힐 필요 없이 저절로 몸이 가는 대로,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마음이 꿈틀거리는 대로 자유롭게 움직였다. 시작 전, 말로는 어렵게 느껴지던 즉흥댄스가 정말 어렵지 않고 쉽게 즐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두들 '나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겠다. 자연스런 몸짓이 하나의 무용, 춤이 될 수 있겠다.' 며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음악과 함께, 자신의 춤에 몰입하였다.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며 혼자만의 춤이 타인과 소통하는 즉흥 춤으로 발전하였다. 말없이 타인과 몸으로 나누는 이야기...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자기 주변 사람들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사람들과 몸짓으로 얘기하고, 소통하고 즐거워하는 사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아쉽게도 풀장댄스는 당초의 계획과 달리 3회로 끝나게 되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꾸준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음을 확정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체험한 참가자들이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 계속 지속되길 바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소극적이거나 외면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참여자 모두가 그 어느 때 보다 몸과 마음을 활짝 열고 나와 이웃을 만나고 소통하는 즐거웠던 모습들이 떠올라 끝나버린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다. 언제쯤 다시 풀장에서 모두가 몸과 마음을 열고 즐거운 음악에 리듬을 타는 날이 올 수 있을까? 풀장에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고 큰 언니, 큰 오빠, 아이들이 모두 모여 상쾌한 기분으로 춤추는 영화와 같은 현실이 풀장에서 다시 일어나길 바란다.

03

나만의 책 만들기

나만의 책 만들기는 상상력 가득한 그림책을 읽고 그 이야기를 토대로
새로운 상상력을 펼쳐 나만의 그림책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이다.
무대처럼 튀어나오는 입체 책도, 아코디언처럼 펼치는 책도 간단히 접어 만들 수 있다.
간단하지만 매회 다른 형식으로 준비된 종이책이 상상력을 자극하고
기발한 소재들이 매번 마음을 설레게 한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 마음껏 동화작가가 되어보는 시간,
아이들은 엄마의 상상력에, 엄마들은 아이의 기상천외함에 놀랐다.

일정
2007.10.10~11.28 매주 수요일 오후 4:30~ 5:50 (8회차)

강사
최정희

참여
김윤, 김민, 박서현, 이경진, 응렬, 성경, 강주리, 김민정, 최미경,
김유정, 김희선, 장은아, 이채림, 강혜숙, 민서연, 김승렬, 윤미숙, 박규리,
홍영옥, 이수회, 남주희, 이슬아, 이희아, 이옥화, 정하윤, 정서윤, 이유화, 김동현, 김동휘

아이가 엄마를 돕는 상상 수업

산 속에 자리한 학교가 좋아진 것이 인연이 되어 사년째 남한산 초등학교의 사서교사로 지내고 있는 최정희 씨. 올망졸망 모여 사는 은행동이 좋아질 무렵, 책마을 도서관과 인연을 맺고 <엄마와 함께 하는 유아 책 만들기- 책이랑 놀자>와 <저학년 책 만들기 - 행복한 책 읽기, 즐거운 글쓰기>같은 어린이 책 관련 프로그램을 꾸려가고 있다.

"풀장 환상의 첫 느낌이요? 거친 듯, 투박한 듯한 책상과 의자, 창작물들이 독특했어요."

풀장환상은 처음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은행동 주민 중에 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있는 강사를 찾고 있었다. 마침 은행동에서 아이들을 위한 도서 활동을 하고 있는 책마을 도서관의 추천으로 최정희 씨를 만나게 되었다.

"저도 은행동 주민이에요.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이기도 하구요. 어려운 봉사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원래 전공이 문헌정보학이었고 자연스레 도서관 사서로 일하게 되었죠. 아이들과 책으로 더 재밌게 만날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책마을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하기도 했구요. 그래서 한 동네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어서 저도 기뻤어요."

그는 이미 학교 도서관에서, 그리고 동네 마을 문고인 책마을 도서관에서 남다른 책읽기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책읽기의 즐거움을 선물하고 있었다. 그런데 은행 주공에서 풀장 환상이 시작되어 프로그램을 과외로 더 진행하게 되었음에도 전혀 힘든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종이책을 매 회마다 다른 모양으로 준비하고 필요한 재료들을 손수 마련하는 정성으로 풀장환상 식구들을 감동시켰다. 이 모든 교육과정은 최정희 씨가 혼자서 나름대로 구성한 것. 수업을 시작하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림책을 하나하나 읽어주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새로운 상상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녀의 모습은 때로는 친구 같고 때로는 엄마 같았다.

"보통 엄마는 아이를 도와주기만 하거나 팔짱을 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엄마도 똑같이 작품을 만들어야 해요. 아이가 오히려 엄마를 도와주는 모습이 신선했어요."

엄마도 스스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하는 시간. 아픈 동물을 어떻게 치료할까? 청어는 어떻게 죽었을까?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면 풀릴까? 엄마가 나름의 상상력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동안 아이들은 엄마가 낸 아이디어에 이러쿵저러쿵 훈수를 둔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가 만든 결과물을 두고 일방적인 칭찬으로 대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작 과정을 함께 하며 아이디어를 나누어야 한다. 나만의 책 만들기는 책 읽기를 시작으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상상해서 자기만의 새로운 책을 만들어 내는 시간이다. 그래서 '나만의 책 만들기'는 풀장환상이 꿈꾸는 문화 활동 프로세스와 무척 닮아있다.

"풀장환상이 어떤 씨앗이 되어 싹을 틔워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도 동네 주민이니 만큼 이 프로젝트가 좋은 계기가 되어 자라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최정희 씨는 지난 봄 부터 독서 치료를 공부하며 책읽기 프로그램에 정서 치료 개념을 도입할 계획도 꿈꾸고 있다. 꼭 문제가 있는 아이가 아니어도 마음을 푸는 치료를 독서를 통해 할 수 있을 것이라 그녀는 말한다. 책읽기를 통해 조금 더 깊은 관계 맺기를 실천하고 있는 그녀가 살고 있는 은행동이 부럽다. 그녀의 독서 치료가 싹을 틔워 은행동의 좋은 문화적 결실로 자랄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 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라는 풀장환상의 부제가 허울 좋은 이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은 최정희 씨 같은 주민이 있기 때문이다.

나만의 책만들기에서 읽고 만든 책

읽은 책

〈강철이빨〉. 클로드 부종. 비룡소
〈힐드리드 할머니와 밤〉. 아놀드 로벨. 시공주니어
〈알록달록 동물원〉. 로이스 엘러트. 시공주니어
〈종합병원〉. 호타카 준야. 제삼기획
〈씨! 씨! 씨!〉. 낸시 엘리자베스 윌리스. 가문비
〈꼬마 돼지〉. 오드리 우드. 보림
〈청어 열 마리〉. 볼프 에를 브루흐
〈소피가 화나면 정말 화나면〉. 몰리 뱅. 케이유니버스

만든 책

〈늑대 할아버지의 이빨 책〉
〈어둠을 쫓는 책〉
〈도형 얼굴 책〉
〈병원놀이 책〉
〈씨 모음 책〉
〈손가락인형 책〉
〈청어 열 마리 책〉
〈화가 풀어지는 책〉

나만의 책만들기에서 만들어진 아이들의 작품은 모두 12월 1일 낙엽활극 전시회에서 공개 되었다.
아이들의 상상력, 재치, 유머에 보는 이들은 저절로 입꼬리가 귀에 걸렸다.

꼼꼼한 손끝으로 두 시간 만에 책 한 권을 만들어 내는 꼬마 예술가들.
한 권의 책이 아이들에게 뿌리를 내리면 수 없이 많은 가지와
꽃이 몽글한 상상력을 통해 피어난다.

04

물레를 돌리자

큰맘 먹고 교외로 나가서 공방을 찾지 않으면 쉽게 체험할 수 없는
도예 공방이 풀장환상에서 매주 일요일 오후 열렸다.
물레를 돌리자는 유약까지 발라 완성된 자기만의 그릇을 모두 하나씩 가져갈 수 있어
풀장환상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참가자가 몰렸다.
청자토로 물레 체험도 하고 찰흙으로 가족과 친구에게 선물할
컵과 그릇도 만들어 보는 시간,
자기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그릇이 신기해 아이들의 환호성이 가득했다.

일정
2007. 10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강사
김훈철

참여
은행주공 주민 130여명

나의 손끝에서 태어난 그릇

‘물레를 돌리자’는 매회 신청자보다 대기자수가 더 많았던 인기 프로그램이다. 입소문을 한번 타기 시작하니 회를 거듭할 때마다 사람들의 참여 문의가 두 배씩 쇄도했고, 신청자가 너무 많아 마감이라도 되는 날에는 아쉬워하며 돌아갔던 주민들도 꽤 많았다. 휴일이라 가족이 함께 풀장을 찾았기에 일요일 ‘물레를 돌리자’는 언제나 들썩이며 북적였고 아이들과 엄마, 아빠들의 의욕도 대단했다.
코일링 기법으로 컵이나 화분처럼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용기를 찰흙으로 만들고 청자토를 이용해 김훈철 선생님과 함께하는 물레 돌리기 체험을 진행하였다. 손으로 오물조물 하는 코일링 기법에도 아이들은 흥미로워했지만 물레만큼은 아니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물레에 온통 신경이 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훈철 선생님은 컵, 밥그릇, 항아리 세 가지 중에서 각자 원하는 것 선택하게 하고 아이들과 손을 합쳐 물레를 돌리자 너도 나도 “우와~ 우와~” 탄성이 터졌다. 원심력에 의해 돌아가는 흙에 구멍을 뚫고 기물의 넓이와 높이가 손짓 하나에 바뀌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남녀노소 너나 할 것 없이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신기해했다.
건조과정과 초벌, 재벌을 거치니 꽤 시간이 걸린다고 누차 설명을 해도 금새 ‘도자기는 언제 받을 수 있냐’며 재촉이었다.
찰흙으로 빚어 만들기 작업을 하기 전, 자신만의 소유물이 아닌 나눔의 뜻을 전하고자 자신이 주고 싶은 사람과 이유를 적고 디자인을 하도록 했다. 부모님께 드리고 싶다는 아이들이 제일 많았고 간혹 짝꿍을 주고 싶다거나, 자기 말을 잘 듣는 동생에게 주고 싶다고도 하는 친구도 있었다. 삐뚤삐뚤한 솜씨로 디자인을 끝내고 찰흙으로 컵을 만들면서 뜻대로 모양이 나오지 않아 속상해 하는 아이도 있었다. 하지만 마침내 그릇이 가마에서 구워져 나왔을 때는 모두들 대만족. 그릇을 안고 돌아가는 사람들 모두 미소가 가득했다.
이런 체험을 하려면 시간을 따로 내서 도자 공방이 있는 교외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하고 싶어도 미뤄왔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 집 가까이에서 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반응이었다.
그런데 첫 시간 정작 프로그램을 진행해보니 엄청난 참여 인파에 밀려 도자기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부족했다. 그래서 두 번째 부터는 보조 강사를 투입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진행하였다. 참여자가 공짜로 그릇을 가지다 보니 문화프로그램으로써의 역할이 무색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던 것이다. 참여 프로그램은 자칫 일방적인 서비스에 머물기 쉽다. 단지 그릇 한 점을 가질 수 있는 행사이기 보다 스스로 만들면서 그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물레를 돌리자>는 수많은 주민의 참여로 인해 은행주공에 ‘풀장환상’을 각인시킨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었다. 그러하기에 풀장환상 스태프들에게 쌍방향 문화프로그램이 잊어서는 안될 지점을 상기시켜준 프로그램이기도 했다.

05

풀장이 환상이야

풀장이 정말 근사하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알록달록 색깔도 입히고, 거창하거나 화려하진 않아도
내 친구가 그린 그림처럼 귀엽고 예뻤으면 좋겠어!
꾸밈의 손길을 기다리는 풀장 곳곳을 은행주공아파트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는 풀장 대변신 프로젝트 '풀장이 환상이야'는
이러한 아이들과 주민들의 마음이 모여
자발적인 참여로 상상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이다.

일정
풀장환상 프로젝트 기간 내
지도
김주희, 김주리
참여
어린이 자원활동가, 중학생 자원활동가

풀장을 환상의 색채로!

풀장 대변신 프로젝트 '풀장이 환상이야'는 꾸밈의 손길을 기다리는 풀장 곳곳을 은행주공아파트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변신을 시키는, 자발적인 참여로 풀장을 아름답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다.3개월간 은행주공의 문화공간이 될 풀장을 직접 칠하고 다듬으며 자신이 사용할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 보는 문화 체험은 물론, 이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로 마련되었다.

초기에는 풀장환상에서 당장 필요한 살림살이들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목공시간을 통해 직접 만든 의자와 탁자, 재활용하여 만든 분리 수거함을 꾸미고 그 위에 색색의 칠을 더하는 작업을 하였다. 기본적인 풀장환상의 살림살이가 갖추어지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풀장 꾸미기가 진행되었다. 토요일 오후에는 놀러 온 아이들을 모아 놀이 풀장의 테두리를 그림으로 꾸미는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조경 관리 때문에 잘려지고 버려진 나무를 모아와서 잘라 그 단면에 풀장환상에 하고 싶은 말이나, 자신의 개성이 더해진 그림을 그리는 '풀장에 내 마음 보태기' 코너를 꾸준히 진행하여 외벽을 장식했다.

마냥 놀고 싶을 것 같은데 오히려 아이들은 놀이처럼 생각하며 기꺼이 풀장 꾸미기에 참여했다. '하늘색 낡은 페인트가 얼룩덜룩 벗겨져 있는 풀장의 낡은 테두리를 어떻게 꾸밀까?' 이름하여 '풀장 액자' 시간엔 꾸미기에 앞서, 아이들이 풀장에 대해 조금이라도 자유롭게 생각해 보도록 시간을 주고, 생각을 말하고 간단한 스케치로 표현해보는 사전 작업 시간을 가졌다. 완성된 스케치를 들고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팔다리를 걷어 붙인 꼬마 페인트공들이 풀장 가장자리에 나란히 둘러앉은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우연히 풀장 근처를 지나가다 풀장에 마음을 더하고 싶어 참여하게 된 가족도 있었다. 작업하느라 옆의 친구와 장난치는 것도 잊을 정도로 자신의 작품에 집중하는 모습. 그림 그리느라 신이 난 아이들은 재미에 푹 빠져 자리를 옮겨 또 다른 그림을 그렸고, 친구의 작품에 자극 받아 자신의 작품에 더 심혈을 기울이기도 했다. 수업도 작업도 아닌 놀이 같았던 시간들. 아이들의 작은 손길이 모이자 풀장은 어느새 엄청난 변신에 성공했다!

11월 4일에 진행된 두번째 '풀장액자' 시간은 사전 스케치 작업을 한 지난 번과 달리, 스케치 없이 즉흥적으로 붓을 들고 바로 작업에 들어갔다. 붓과 페인트만 주고 그려보라고 하자 "그냥 그리라고? 뭘 그리지?" 라고 하던 참여자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양하고 재미난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놀라웠다. 이전에 비해 다소 구성력이 떨어지는 듯하지만 그 자유로움이 만들어낸 독특함이 풀장액자에 더해졌다. 삐뚤빼뚤 글씨들, 알록달록한 글씨와 상상들, 어설프지만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감동이었다.

2년 간 흉물스러웠던 풀장이 아름다운 공간으로 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렇게 변신을 할수 있었던 힘은 풀장을 향한 은행주공아파트 사람들의 열정에 있다. 공동 공간이 많지만 아파트 사람들이 사실 개인화되어 살아가기에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는 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애정을 담을 대상이 생기면 마음이 모아지듯이 주민 참여로 진행된 풀장꾸미기는 은행주공아파트 사람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생각을 은행주공아파트 사람들도 느꼈을 것이다. 현실에서는 혼자서 도저히 불가능한 환상적인 공간 변신이, 힘과 마음이 모이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현실이 된다는 것을 말이다.

밋밋했던 풀장 앞 계단도 변신하였다. 풀장에 매일같이 놀러오는 열혈 꼬마 팬들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어린이 자원활동가 팀이 꾸려졌고 은행중학교와 연계해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되도록 해 중학생 자원활동가들도 풀장꾸미기에 참여했다. 초등학생들이 시간가는 줄 모르고 풀장 액자 작업을 하는 동안 중학생 봉사활동 아이들과 뒤늦게 참여한 꼬마 친구들 이풀장 앞 계단에 색색의 옷을 입혔다. 고마운 손길이 모여서 풀장 앞 계단에도 활기를 더해주는 싱그러운 초록색과 파란색의 물결이 만들어졌다.

누렇게 된 흰 타일로 채워진 공간을 중학생 자원봉사자 수연이와 희라가 힘든 기색도 없이 열심히 롤러를 굴려가며 밝고 신비로운 희망이 가득 찬 노란 방으로 바꿔놓았다. 어느덧 풀장환상 곳곳이 은행주공아파트 사람들의 마음과 손길로 채워졌다. 풀장환상 외벽에 '내 마음 보태기' 나무 조각들이 한가득해지니 예전의 쓸쓸했던 모습은 더 이상 찾을 수 없었다. '워크숍 방' 입구는 그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열정의 색으로 바뀌었고, 근처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풀장환상의 소식을 알리는 풀장환상 외부 게시판도 새롭게 바뀌었다. 나날이 예뻐지는 풀장환상의 모습에 무심했던 사람들도 지나치지 않고 둘러보고, 풀장환상 단골손님들도 올 때마다 변화하는 모습에 즐거워했다.

클럽ON

01 은행주공 생태체험
02 낄낄마녀의 동화책
03 생활미술공예 포크아트
04 유진이의 점핑클레이
05 유아용품 DIY&테디베어
06 소영이의 종이접기

01

은행주공 생태체험

현관문만 벗어나면 언제든지 자연을 접하고 즐길 수 있는 남한산성 자락 은행주공.
아파트 곳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들의 이름을 배우고
숨어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행을 떠나자.
자연을 아끼는 마음이 저절로 살아나 아이들은 더욱 생기 있는 꿈을 꿀 것이다.
'은행주공 생태체험'은 은행 주공 주민인 생태활동가 김현주 씨의 안내로
은행주공의 소중한 자연 환경을 주민과 함께 나눔은 물론
풀장 앞 생태 벽화와 은행주공의 새 이정표를 탄생시키는 역할을 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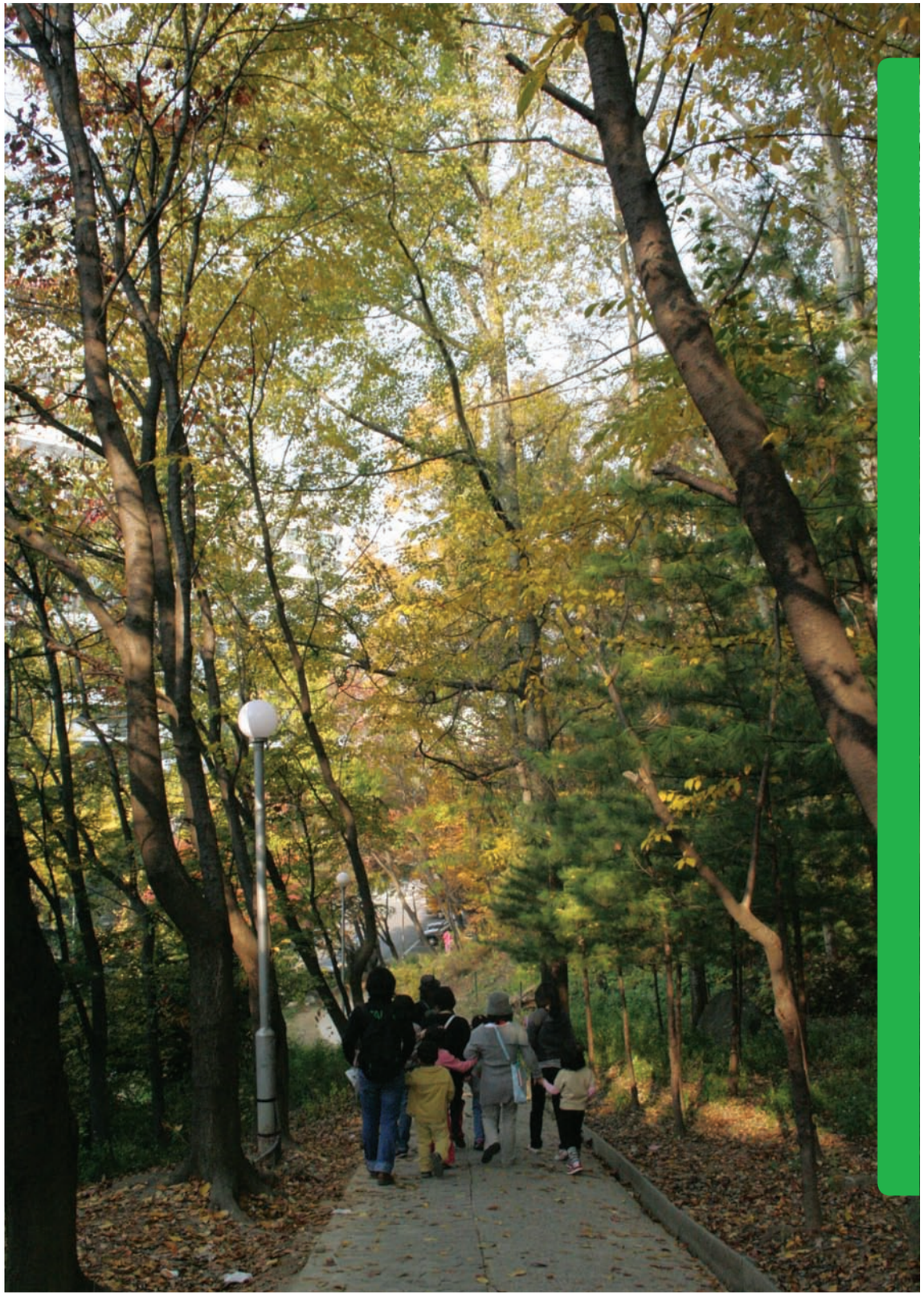
일정
2007.10월 8,15,22일, 11월 7,8일 (총 5회)

강사
김현주

참여
김민정, 김민영, 강주리, 장은아, 최예림, 박지원, 박지민
이경진, 김웅렬, 김성경, 홍영옥, 이수희, 한효정, 안진선, 이소진
강혜미, 정하윤, 정서윤, 이옥화, 김미숙, 한승희, 이송이, 이슬아

은행주공 숲을 거닐다

남한산성 산자락에 위치한 은행 주공은 도심의 아파트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생태 환경을 자랑한다. 현관문만 벗어나면 언제든지 자연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이 곳의 환경은 나무 한 그루 뿌리내리기 쉽지 않은 삭막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 부러움의 대상이다.그러나 가까이 있다 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의미를 잃는 법. 칸칸이 일렬로 나누어진 아파트처럼 딱딱하고 단순한 삶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며 열린 관계가 되도록 자극할 프로그램이 필요했다.
그래서 은행주공의 자연 환경의 소중함,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들을 통해 더 넓은 이웃 의식을 공감할 수 있는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은행 주공 주민 김현주 선생님은 이 지역 생태 전문가이자, 환경지도자협의회 회원이다. 1999년부터 성남지역에서 초등학교 생태체험학습, 중고등학교 CA 환경체험활동, 성남시 여름 체험 환경학교, 가족과 함께하는 남한산성 환경기행 등에서 강사로 활동해 왔다. 김현주 선생님은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방식으로 가을을 지나 겨울을 맞이하는 은행주공아파트 생태의 변화를 고려했다.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눈으로만 보는 생태체험이 아닌, 미각, 촉각, 후각 등 온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셨다. 맛보고 놀이하는 색다른 체험활동을 통해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이 달라졌다. 별달리 관심도 없고 한 두 가지 꽃과 나무 이름을 아는 것이 전부였던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단풍나무의 씨앗을 구분하고, 괭이밥의 새콤달콤한 맛을 알고, 동네 곳곳의 수풀 이야기를 줄줄 말할 줄 알게 되었다.
'은행주공 생태체험'은 총 3회의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이후 2회를 더 늘여, 은행주공의 생태를 담은 벽화와 이정표를 탄생시키는 밑거름이 된 풀장환상 최고의 수확이었다. 김현주 선생님의 진행과 은행주공의 풍부한 자연에 감탄해 은행주공의 생태환경만을 담은 책을 발간해보자는 의견도 나올 정도였다.
겨울이 지나고 생태 시계가 다시 움직이는 봄이 찾아오면 은행주공아파트의 숲과 뜰은 더욱더 무궁무진해질 것이다. 이 프로그램이 봄볕과 함께 아지랑이처럼 다시 재개된다면 새봄, 아파트의 기운이 더욱 새록새록하지 않을까?



10월 8일

첫 시간에는 은행주공아파트에 화단과 길가에 살고 있는 풀들과 가을꽃들을 만나보기로 했다.
호기심에 가득 찬 초등학생들과 아이들 교육에 열정적인 어머니들이 모였다.
생태체험 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아이템, 잎사귀와 벌레를 10배로 확대시켜 보여주는 '루페' 를 하나씩 목에 걸고, 풀장환상의 주변부터 살펴보는 것으로 체험을 시작하였다.
루페를 통해 풀잎과 꽃잎의 섬세하고 신비한 매력을 보느라 여기저기서 '와!' 하고 감탄이 절로 나왔다.

시각적 발견뿐이랴. 평소 생각치도 못했던 미각, 촉각 체험도 해보았다. 괭이밥의 새콤달콤한 맛에 푹 빠진 아이들은 맛있다며 서로 먹여주기도 하고, 가을까지 피어있는 분꽃의 씨앗이 엄마들 분가루 대용으로 쓰였다는 얘기를 듣고 씨앗의 하얀 가루를 얼굴에 발라 뽀얗게 된 얼굴을 보고 한동안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였다.
이렇게 오감이 즐겁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지혜들을 들으면서 체험을 하다 보니 모두들 다리 아픈 줄, 시간 가는 줄 몰랐다.

10월 15일

'은행주공 숲의 나무들' 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두 번째 생태체험. 첫 시간의 오감 만족, 생태체험만의 재미가 입소문으로 퍼져서 전 보다 더 많은 참여자들이 참가하였다. 이날 체험은 은행주공아파트의 방대한 숲을 이루고 주민들에게 신선한 공기와 푸르름을 주는 나무들은 어떤 종류이며, 그들의 생태는 어떠한지, 거기에 얽힌 이야기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관해 체험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흔히 라일락 나무라 알려진 수수꽃다리, "첫사랑의 아픔" 이라는 별명이 붙은 수수꽃다리 잎의 쓴맛은 아직 첫사랑을 겪어보지 못한 어린아이들이 얼굴을 찡그릴 만큼 인상적이었다. 나무 줄기의 표면이 얼굴에 버짐이 핀 것 마냥 생겼다 하여 이름 붙여진 버즘나무, 키가 크고 멋진 메타세콰이아, 5-6월이면 달콤한 향기가 나는 하얀 꽃을 피우는 아까시 나무, 숲의 또 다른 식구인 청솔모와 다람쥐에게 겨울 양식을 제공하는 밤나무, 상수리 나무, 참나무, 싸리 나무, 독일 가문비 나무 등등 은행주공에 함께 살고 있는 나무들을 만져보고, 안아 보았다.

공터를 지나 숲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보다 더 즐거운 체험을 하였다. 이름 하여 '가까운 사람에게 나무 선물하기'. 두 명씩 짝을 지어 눈을 가린 짝에게 다른 한 명이 숲의 나무를 하나 정해 선물하는 것이다. 눈을 가린 사람은 촉감만으로 선물 받은 나무를 인식하게 한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눈을 가린 수건을 풀고 짝이 선물해 준 나무를 찾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신기하게 모두들 선물 받은 나무를 금새 찾아냈다.
마지막으로 자루에 가득 모은 나뭇잎을 조각내어 나뭇잎 퍼즐을 만들었다. 언뜻 보면 간단할 것 같은 퍼즐이지만 나뭇잎의 모양과 특징을 잘 관찰하지 않으면 정확히 맞출 수 없다. 책상 위에 펼친 나무 조각을 이리저리 맞추면서 나무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익힌 아이들은 길을 걷다가도 나무 이름을 줄줄 외워댔다.

10월 22일

겨울을 준비하는 은행주공아파트 자연의 모습. 단풍과 열매, 씨앗들을 알아보는 시간.
풀장환상 주변의 아름다운 색들이 짙어지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어느덧 가을이 절정에 접어들어 본격적으로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매번 가을이 오고 겨울을 기다릴 때마다 은행주공아파트를 둘러싼 자연들이 바뀌는 것을 당연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쳐 버렸던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생태체험을 통해 은행주공아파트의 생태가 어떤 모양으로 옷을 갈아 입고, 왜 그렇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120동 뒤 넓은 공터에서 놀이를 통해 식물의 번식법을 배우는 시간. 다양한 씨앗들을 입으로 후후~ 불고, 손으로 날려보고, 누가 멀리 보낼 수 있나 던져보았다.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솜털 씨앗과 바람개비처럼 빙글빙글 돌며 떨어지는 잣나무씨앗은 아이들이 앞 다투어 가지고 놀 정도로 인기였다.
숲으로 자리를 옮겨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들의 다양한 열매와 씨앗에 대해 배웠다. 흔히 볼 수 있는 밤과 도토리 외에도 선생님이 소장한 다른 종류의 도토리와 열매들을 보고 만져 볼 수 있었다.
마지막 작업은 열매와 씨앗, 나뭇잎으로 귀여운 벌레 펜던트를 만들기였다. 곤충의 모양을 잘 관찰해 식물에서 같은 모양을 찾아내 만들어야 한다. 아이들은 금새 액세서리로 활용해도 좋을 만큼 아기자기하게 곤충을 표현했다. 자연의 재료를 활용하여 자연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는 경험. 생태체험이 끝난 후에도 아이들은 스스로 응용해 나무 조각으로 작은 배지를 만들기도 했다.

11월 7,8일

은행주공 생태체험을 진행하면서 풀장환상은 은행주공에 숨겨진 놀라운 생태 면모를 더 널리 알리고 싶어졌다. 그래서 풀장 앞 큰 벽에다 은행 주공의 생태 환경을 담은 벽화를 그리기로 결정했다. 또 은행 주공의 새로운 이정표 체계에도 생태체험에서 얻은 지혜를 담기로 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다. 그래서 두 차례 더 생태체험 프로그램이 추가되었다. 은행 주공의 생태환경에 관한 책을 만들어 보자는 의견도 나왔다. 새로 추가된 답사길에는 벽화 작가와 이정표 디자이너가 함께 해 정보를 수집했다. 아이들의 귀는 더욱 쫑긋해졌고 벽화에 함께 담을 그림을 그리느라 손놀림도 바빠졌다.

체험 시간 중 기억에 남은 동식물 그리고 곤충들을 직접 그린 그림이 벽화로 남는다는 기대에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은행주공은 생태체험 프로그램 덕분에 더 이상 101동 101호 같은 숫자로만 기억되는 딱딱한 공간이 아니라 숲과 생명이 어우러진 동네로 재발견되었다. 주민들도 재개발을 기다리는 오래된 아파트라는 인식 대신에 쭉 뻗은 버즘나무와 딱따구리 둥지가 있는 향기로운 동네로 자부심을 가지게 되리라.

02

낄낄마녀의 동화책

'낄낄마녀의 동화책'은
책 읽기 퍼포먼스를 하셨던 신지은 선생님과
같은 또래의 아이를 키우며 자연스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또는 좋은 동화책을 아이에게 읽어주고 싶은 마음의 엄마들이
낄낄마녀 퍼포먼스를 하면서 시작된 모임이다.
동화책을 통해 엄마와 아이가 즐겁게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
낄낄마녀의 동화책을 소개한다.

일정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풀장환상

참여
이경진, 최미경, 김희선, 강혜숙, 이기남
박미연, 장윤희, 한미경, 정숙정, 이윤경

유치원버스를 기다리는 엄마들

은행주공아파트 내에는 다양한 버스들이 드나들며 사람들이 모였다 흩어지는데,
유독 즐겁고 밝은 모습으로 정류장 부근에 모여 있는 분들이 눈에 띄었다.
어린아이를 둔 엄마들이 유치원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인상적인 모습에
그분들에게 풀장환상은 문화모임을 제안하였다. 모두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면서도 풀장에서의 만남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바로 연락망을 취할 수 있게 정숙정씨가 반장으로 정해졌고, 이렇게 '낄낄마녀의
동화책'모임이 시작되었다.
안양 YMCA에서 책읽기 퍼포먼스를 했었던 신지은 선생님은 준비해 온 책들을
보여주며 엄마들에게 마녀복장으로 아이들을 맞이하고 책을 읽어주자고 제안했다.
엄마들은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기 전까지 창피하다며 마녀복장을 꺼려하시더니
어떻게 자신감과 의지가 생겼는지 재미있겠다며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라할 아이를
생각하며 신이 났다.
길 다란 마녀모자, 빗자루, 망토, 책 바구니, 그리고 '책마을어린이문고'에서 특별히
선별해 빌려온 20여권의 동화책. 완벽한 준비를 마치고 '낄낄마녀'들은 유치원버스가
오는 곳으로 갔다. 버스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유치원선생님도 깜짝 놀란
이벤트가 시작되었다. 낄낄마녀는 근처 놀이터로 가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었고,
아이들은 신기해하면서 초롱초롱한 눈으로 동화책 속에 빠져들었다.
책 읽는 마녀들과 아이들, 뛰어노는 아이들이 뒤섞여 놀이터는 환상적이고 자유로운

공간이 되었다. 낄낄마녀 퍼포먼스 후 다시 신지은 선생님과 놀이터에서 만나
동화책 즐겁게 읽기와 동화책 보는 방법 등 여러 이야기와 궁금한 점들을 나누었다.
책을 읽으며 가장 중요한 점은 아이들이 최대한 상상을 할 수 있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의 모임을 독려해 주었다.
다음 모임부터는 엄마들끼리 모여 진행되었는데 선생님 없이 스스로 하려니 많은
어려움이 생겼다. 모두들 모임을 이끄는 역할에 부담을 가졌고, 모임에 대한 기대도
다양하게 달랐다. 하지만 해보자는 의지에 반장이 정해지고 다음 모임 날짜가
잡혔다. 그리고 '책마을어린이문고'의 장정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보기로 했다.
장정심 선생님은 모임이 잘 이워질 수 있도록 도서관 이용이나 책에 관련한 정보 등
여러 이야기를 해 주었고 언제든지 도움을 주고 싶다하셨다.
'낄낄마녀의 동화책' 모임은 각자의 일정과 사정, 기대가 달라 많은 이가 함께 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이끌 힘이 부족해 힘들었지만 모임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초대한 집에서 만나서 서로의 동화책을 교환해 읽고, 수다도 떨고, 주변정보도
나누며 친교를 가졌고 '각자 돌아가며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를 하자, 독후감을
써오자, 관련정보를 모아보자'는 등의 의견들로 발전되었다. 미약한 시작이지만
아파트 안에서 작은 실천의 힘이 모으고, 움직이며 지속적으로 가꾸는 노력이
소중해 보였다. 이런 작은 움직임이 아이들과 함께 기분 좋은 문화 나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03

생활미술공예 포크아트

은행주공아파트 전문가들 풀장으로 모여라!
은행2동에 사시는 한정순 님이
'생.애.처.음.'으로
가구를 리폼하는 포크아트 강의를 시작하였다.
풀장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꽃은 자신의 특기를 살린 '나눔의 강사'가 아닐까.

일정
매주 월요일 10:30~12:00 풀장환상
나눔의 강사
한정순
참여
허미화, 이현주, 유진영, 이주은, 이옥화, 서유화, 박상진

서로에게 배우는 풍경

풀장환상의 여러 프로그램들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을 두드린 은행2동 주민, 한정순 님은 포크아트와 스탠실 공예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만남을 가지고 싶어 하셨다. 그녀는 오래전에 포크아트를 배우며 작업을 하다가 아이를 키우면서 한동안 하지 못했는데 이번기회에 다시 재능을 살려 문화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하였다. 집에 있는 소품들을 예쁘게 꾸며 리폼하는 포크아트는 풀장에서 함께 나누며 즐길 수 있는 놀이로 제격이었다.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홍보를 하였고 모임 첫날 네 명의 회원이 모였다. 이 날은 다과와 함께 모임 소개와 인사를 나누었는데 몇 분은 이미 아는 사이였다. 아이들이 같은 또래다 보니 학교나 학원에서 종종 마주쳤던 것이다. '이런 재주를 가지고 있었는지 몰랐다.', '누구네 엄마로만 알고 있다가 이름을 알게 되니 새삼스럽다.' 며 반가워했고, '같은 아파트에 오랫동안 살면서 처음 보게 되네요.', '집에 리폼하고 싶은 서랍장이나 책장, 소품들이 많다.'며 이 얘기 저 얘기 한껏 수다를 떨었다.
두 번째 만남, 첫 작업으로 '잠시 주차 중입니다'라는 작은 표지판을 만들기 위해 주걱, 받침대 등, 간단한 나무 소재를 준비했다. 이날은 몇 분이 더 참가하면서 작은 풀장 공방이 가득 찼다. 처음으로 강의를 해본다는 한정순님은 미리 준비한 도안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설명하며 진행하였다. 약간의 서먹한 분위기는 함께 손을 놀리고 질문이 오가면서 따끈한 작업실 분위기로 바뀌었고 모두들 알록달록 예쁜 그림 채색에 녹아들었다. 이후 매 주 모임을 가졌고 여러 주부들이 소품을 완성해 마지막 낙엽활극 축제에서 전시도 하였다.
풀장환상 막바지에 합류한 주민 자치 프로그램이어서 많은 만남과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모임을 지속하기 위해 회원들은 의견을 모았다. 날씨가 춥고 풀장에서 활동하기가 어려워서 부녀회 회의실에서 후속 작업을 위한 모임이 진행되었다. 풀장의 지원으로 모임이 이뤄졌는데 앞으로 모임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지, 모임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한 고민들이 오갔다. 작업 비용에 있어, 풀장환상에서 지원받은 재료를 먼저 쓰면서 더 필요한 것이 생기면 천천히 개인적으로 재료를 구입하는 것으로 정했다. 그리고 모임 장소 문제도 부녀회와 연계하여 부녀회 회의실에 재료를 둘 수 있는 공간을 정하고 지속적으로 공간을 쓸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유아용품&테디베어 DIY 모임과도 함께 결합해 서로에게 가르쳐주고 배우는 풍경이 벌어졌다. 은행동에서 꼬물꼬물 피어나는 문화 동아리들의 움직임이 한 겨울, 동네 곳곳을 정답게 물들일 것 같다.

04

유진이의 점핑클레이

주민이 만들어가는 '클럽 온' 프로그램의 첫 모임으로
놀랍게도 어린이 강사가 자신의 재주를 나누고 싶다며 자원해 왔다.
초등학교 3학년, 황유진 어린이가 그 주인공이다.
요즘 유행하는 고무찰흙은 다양한 색을 조합해 만들 수 있는데다
촉감이 포근해서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선생님이 된 유진이는 과연 2년 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어떻게 친구들에게 전수했을까?

일정
2007. 10. 20 ~ 현재 (주 1회, 앞으로도 문화 소모임으로 지속될 예정)

강사
황유진 (은행초등학교 3학년)

참여
김민정, 김민영, 강주리, 장은아, 최예림, 박지원, 박지민, 이경진, 김웅렬, 김성경
홍영옥, 이수회, 한효정, 안진선, 이소진, 강혜미, 정하윤, 정서윤, 이옥화, 김미숙
한승희, 이송이, 이슬아

포근한 점핑클레이

은행초등학교 3학년, 황유진 어린이는 풀장환상에서 생겨난 첫 문화동아리의 지도자다. 2년 동안 갈고닦은 색찰흙 공예실력을 바탕으로 유진이는 스스로 프로그램도 짜고, 친구들을 가르치며 배움을 나누었다. 이름하여 '유진이의 점핑클레이'.

"미술과 음악수업이 제일 재밌어요. 다른 과목은 재미없어요. 항상 집에서 동생 같은 강아지 구름이를 안고 자요. 그래서 구름이를 모델로 클레이인형을 벌써 여러 개 만들었어요."

사진기 앞에선 쑥스러움 많은 소녀이지만 클레이 얘기라면 생기발랄한 말솜씨를 이어가는 유진이의 이야기이다.

유진이는 집에서 그간 만들어 둔 수 십 개의 클레이 인형을 상자에 한가득 담아 엄마와 함께 풀장을 찾았다. 유진이가 풀장에서 점핑클레이 선생님이 된 계기는 주변 어머니들의 자랑과 추천 때문이었다. 그래도 처음인지라 10월 20일 첫 수업에서는 긴장 백배. 한마디 말없이 시범을 보이는 유진이와 각자 만들고 싶은 것들을 만드는 친구들의 분위기가 살짝 어색했다. 첫 시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엄마에게 유진이가 "엄마, 아이들이 모두 나만 쳐다보니까 말이 안 나와."라고 했단다.

그러나 한 두주, 시간이 흐르자 유진이는 솜씨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존댓말로 차근히 재료를 만져서 모양을 만드는 법을 설명해주기도 하고 노랑, 빨강, 검정을 적절히 섞어 갈색을 만드는 방법도 친구들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실수를 하면 '미안합니다.'라고 아주 정중히 사과도 할 줄 알았다.

학생들이 유진이를 바라보는 눈빛도 무지 진지했다. 단순히 각자 만들고 싶던 걸 만드는 것에서 주제를 한가지 정해 만드는 것으로 수업의 방향도 업그레이드 되었다. 물론 매 수업마다 어머니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어머니들은 수업의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선에서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어린 유진이는 자신이 꾸리는 클럽온 동아리를 통해 자신의 기술을 가르치는 경험도 해보고 선생님과 제자로서 친구들과 새로운 관계 맺기도 경험한 것이다.

모임이 안정되자 유진이와 친구들은 은행주공 아파트 전체를 아기자기한 모형으로 만들기로 했다. 그리고 삼주 동안의 준비 끝에 풀장에서 벌어진 '낙엽활극' 축제에 은행주공 아파트 모델을 완성해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만들기 선생님이 꿈이 되어버린 유진이와 옹기종기 손끝에서 귀여운 인형들을 만들어내던 은행주공 아이들의 점핑 클레이 모임도 앞으로 계속될 예정이다.

관리소 부녀회방의 따끈한 방바닥에 둘러 앉아 고무찰흙을 조물락 거리고 있을 아이들의 모습이 선하다. 점핑 클레이를 통해 우정을 다진 친구들과 유진이의 상상력이 앞으로도 몽글몽글 솟아나길 응원한다.

점핑 클레이 진행과정

첫 수업

손으로 했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이 만들어 낸 피카츄 인형과 스스로 창의력을 발휘해 만들어낸 수 십 점의 클레이 작품을 박스에 가득 싣고 유진이가 풀장 문을 두드렸다.
"유진아 나도 도와줘."
금새 재미를 붙인 아이들은 유진이를 서로 찾는다.
그런데 유진이는 말없이 만들기만을 계속, 긴장한 어린이 선생님 때문에 많은 것을 배울 수는 없었지만 서로 재료를 사오겠다며 열의를 불태우는 참가자들 덕분에 화기애애했던 첫 수업이었다.

산타 만들기

풀장환상에서 모임을 지원하기 위해 재료를 준비하고, 유진이의 수업도 한가지 테마를 정해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점핑 클레이가 더 안정되고 내용면에서도 한 단계 진전된 것이다.
유진이가 먼저 모델을 보여주고 시범을 보이는 데로 아이들이 클레이 기법을 구체적으로 익혀나갔다.
이 수업 후 유진이도 자신감을 얻어 점점 훌륭한 진행 솜씨를 갖추어 나갔다.

은행주공 모형 만들기

유진이와 친구들의 손가락 끝에서 빚어지는 은행주공아파트는 분홍색, 노란색 등 알록달록 아이들의 꿈의 색을 입었다.
'아파트 색깔이 꼭 흰색이어야 할 필요는 없잖아. 내가 느끼는 대로 색을 입히는 거지.'
아이들은 귀가 달린 동물 모양 아파트도 만들고 나아가 상상력을 발휘해 개구리가 헤엄치는 연못도 만들었다. 3주에 걸쳐 아이들의 손에서 손가락만한 그네와 미끄럼틀, 은행주공의 상징인 시계탑과 은행나무가 달콤 보들한 모양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낙엽활극 전시

주민 자치로 꾸려나갈 점핑클레이 모임을 소문내는 자리.
지금까지 만든 클레이 작품들을 전시했다. 특히 은행주공 모형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상상력으로 색을 입힌 아파트와 단풍이 물든 나무들, 아기자기한 놀이터와 사람들의 모습이 모여 한 가득 풍성한 동네를 이룬 모습.
추운 날씨였지만 힘을 모아 대작을 완성해 낸 아이들의 보람이 가득했다.

05

유아용품 DIY & 테디베어

아파트에서 젊은 엄마들이 새 친구를 만들고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즐거움을 찾고자
은행주공아파트 119동에 사시는
박상진 님이 '나눔의 강사'를 자청하셨다.
하나 둘 쑤욱 쑤욱 태어나는 반가운 클럽ON, DIY 시간!
예비엄마들이 아가의 물건을 직접 만드는
바느질 모임이 시작되었다.

일정
매주 목요일 10:30~12:00
나눔의 강사
박상진
참여
이은경, 윤희순, 서유화

아기를 위한 작은 클럽의 탄생

119동에 박상진님은 풀장환상 홈페이지를 통해 문화모임지원 프로그램, '나눔의 강사'를 신청하였다. 이미 이전에 아파트 내에서 모임하려고 했었는데 혼자 하려니 잘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미 여러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 풀장에서 생각을 이뤄보고 싶다고 하였다. 바느질을 해서 턱받이나 손 싸개 같은 유아용품에서부터 능숙해지면 인형까지 손수 제작하는 예비엄마들의 모임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참여자가 둘 이상이 되면 시작하기로 하고 바느질 기본 익힘이 되는 손싸개나 턱받이 재료를 풀장에서 지원하기로 하였다.

신청한 분들은 대 여섯 분 이었는데 실제로 모인 분은 두 분이었다. 예비엄마 서유화 씨와 셋째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윤희순 씨였다. 간단하게 집에 있는 바늘과 실을 준비해 오기로 했는데 서유화 씨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신혼살림임을 강조하듯 실 바늘 세트를 준비해 왔다. 그녀는 바느질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지만 태교에 도움도 되고 앞으로 보게 될 아이가 쓸 것을 직접 만들고 싶어서 이 모임에 나오게 되었다고 했다.

윤희순 씨는 풀장에 매일 찾아와 한참을 놀다가는 재간둥이 허수회 어린이의 어머니다. 아이 때문에 풀장에 여러 차례 따라 왔다가 여러모로 관심을 갖게되고 직접 참여까지 하게 되었다. 예전에 직접 배냇저고리를 만들어 입힐 만큼 바느질을 좋아했는데, 이참에 셋째를 위한 소품들을 만들어 보기로 한 것이다.

동네에 이사 온지 얼마 안된 새댁과 풀장 단골 어린이의 어머니가 모여 아이 이야기, 풀장 이야기를 나누며 첫 모임이 시작되었다.

매주 목요일 모임을 꾸리면서 박상진 님은 집에서 라디오를 가져와 음악을 들으며 바느질을 배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기본적인 바느질을 익힐 수 있는 소품 만들기를 먼저 진행하고 차차 각자 필요하거나 만들고 싶은 것을 다양하게 만들어 나갔다.

함께한 회원들은 바느질 재미와 점차 모양이 갖추어져 나가는 작품들 때문에 시종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또 풀장의 낙엽활극 때는 직접 만든 테디베어 인형과 소품들을 전시하고 예쁜 인형볼펜을 만들어 보는 코너도 진행하였다. 이런 즐거움을 좀 더 많은 이들이 함께하지 못해 아쉬웠다. 다른 문화지원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날씨가 추워 풀장에서의 활동이 힘들어져 부녀회 회의공간으로 옮겨 진행하였다.

아파트 내 공간에서 주민들 스스로 시작하려는 문화 모임은 생각과 실천 사이에서 변수가 많다. 우선 활동 시기와 활동 의지가 잘 맞아떨어져야 한다. 이러한 주민 자치 문화 동아리가 조금은 생소해 어려울 수 있지만, 풀장환상에서 벌인 것처럼 여러 다양한 모임을 활성화시켜 모으고 다른 모임들과 연계한다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잠자던 자원들이 깨어나 나눔을 실천하는 은행 주공 아파트 주민들의 모습이 좋은 사례로 남으리라 기대된다.

06

소영이의 종이접기

은행주공 주민이 강사로 참여한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주민이 직접 모든 것을 꾸린 프로그램이
생겨날 수 있을까 걱정이 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유진이의 점핑클레이, 포크아트와 테디베어에 이어
한 꼬마 친구가 풀장의 문을 두드렸다.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조리 있는 말씨와
친절한 설명으로 전문 강사 같은 솜씨를 지닌 박소영 어린이였다.

일정
11월 25일 ~ 현재 매주 주말
강사
박소영 (은행초등학교 5학년)
참여
풀장환상 단골 어린이들 10여명

친절한 어린이 선생님

11월이 되자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클럽ON에 슬슬 불이 붙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재능을 나누겠다는 주민들이 풀장환상을 찾아온 것이다. 그러다 어느 날 한 꼬마 숙녀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종이접기를 하고 싶다고 해서 풀장에 놀러오고 싶은 새 친구이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란다.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엄마를 따라 배운 종이접기를 아이들한테 가르쳐도 되냐는 것이다. 풀장환상 스태프들은 조금 어리둥절해졌다. 예상치 못한 어린이 강사의 출현이 놀랍기도 했지만 혹시나 풀장환상이 어린이 놀이방이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우려도 잠시 뿐, 초등학교 5학년 박소영 어린이는 어른들도 깜짝 놀랄 만한 진행솜씨로 자칫 산만해 질 수 있는 어린이 모임을 진지한 공예 모임으로 이끌어나갔다.

풀장환상이 막바지를 향해가던 11월 25일, 종이접기의 첫 수업이 열렸다. 종이접기는 간결한 설명과 정확한 순서 없이는 진행하기 힘든 공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강자들이 또래 친구들이거나 더 어린 동생들이니 자칫하면 분위기를 잡지 못하고 장난으로 흐르기 쉽다. 그런데 어찌나 조리 있고 차근차근하게 설명하는 지, 소영이는 전문 강사 못지않은 소질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 한 사람씩 잘 따라 오고 있나 확인도 하고, 시간을 맞추기 위해 즉석에서 속성 접기를 생각해내기도 했다. 동생들의 응석도 받아주며 예쁜색 종이를 골라주는 친절함까지, '초등학생도 이렇게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감탄이 절로 나왔다. 참여했던 조은선 어린이는 '저도 뭔가 가르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며 부러워했다. 아이들 사이에서도 뭔가 재주를 연마해 가르쳐 주고 싶다는 이야기들이 오고갈 정도였던 것이다.

소영이는 유진이의 점핑클레이에 참여해 유진이에게서 먼저 점토 공예를 배웠다. 그리고 이어 시작된 종이접기에는 유진이가 종이접기에 참여해 모빌을 함께 만들었다. 서로 가르쳐 주고 배우는 풍경이 아이들이 꾸린 프로그램 사이에서 벌어지니 지켜보던 어른들의 마음이 더욱 흐뭇했다. 아이들 모임에 이어 주부들이 꾸려가는 테디베어와 포크아트 동아리도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상황이 벌어졌다. 풀장환상이 문을 닫으면 이 동아리 모임들은 겨울동안 따뜻한 관리소 부녀회 방으로 자리를 옮겨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풀장환상 세 달째, 이제 정말로 자생적인 동아리가 탄생했다. 아이들의 솔선수범으로 시작된 문화 나눔이 계속해서 이어지니, 은행주공의 겨울은 다른 어느 동네보다 아늑하고 따뜻할 것만 같다.

동네방송국

01 미디어 수다방

02 중학생 UCC

01

미디어 수다방

미디어 수다방은 성남 미디어 공동체 늘봄과 함께 준비한
미디어 교육프로그램이다.
동네 방송국을 꿈꾸며 시작했던 애초의 기획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미디어수다방 회원들은 사진과 동영상 촬영 및 편집을 익혔으며
당당히 자기만의 작품을 완성해냈다.
은행주공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담은 수다방 사람들의 영상물은
낙엽활극 축제에서 상영되었다.

일정
2007.10.8 ~11.28 매주 월, 수 오전 10~12시 (총 12회)
강사
이상훈, 김결 (성남 미디어 공동체 늘봄)
참여
김현경, 김순희, 이선희, 강현희, 최재희

잠자는 캠코더를 깨워라

처음 미디어 수다방 회원을 모집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주부들은 영상물을 만드는 활동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했고, 방송국이라는 타이틀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했다. 자발적인 신청이 없던 차에 은행주공 부녀회 회원 몇 분이 기존에 하고 있던 퀼트 모임을 통해 많은 주부회원들을 미디어 수다방에 초대했다.
미디어 수다방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UCC를 제작해, 만들어진 UCC를 통해 서로 소통하기를 꿈꾸며 기획되었다. 소형 디카로도, 집에서 자고 있는 캠코더로도, 심지어는 폰카로도 가능한 것이 UCC제작이다. 중요한 것은 미디어가 소통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기에 주부 미디어 모임의 가능성에 희망을 걸었다.
그러나 주부들은 간단히 아이들 사진 찍는 법이나 배우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미디어 수업은 사진을 통해 자기 이야기를 구성하는 법, 사진을 읽는 법, 인물사진과 풍경사진, 구도와 앵글, 편집기법까지 작품을 완성하도록 꽉 짜여있었다. 기대와 다른 수업, 기대와 다른 참가자 구성 때문에 수업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했다. 각자의 디지털 카메라 사용법부터 차근차근 다시 시작했고 서로 인내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섰다. 비록 숙제를 꼬박꼬박 하진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부들은 참여해 장롱 속에 잠자고 있던 캠코더와 친해져 갔다.
홈페이지를 열고 미디어 수다방 게시판을 마련했지만 안타깝게도 잘 이용되지 못했다. 하지만 부녀회 먹거리 나눔이나 산행 행사가 있을 때면 미디어 수다방 회원들은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촬영한 결과를 두고 미숙한 부분들을 김결 선생님이 지적했지만 오히려 그런 실수들을 통해 촬영의 기초를 단단히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미디어 수다방 회원들은 늘봄에 찾아가서 편집 작업을 할 정도로 열의를 잃지 않고 막바지 작업에 임했다. 잠자는 캠코더를 깨우고 긴 여정 끝에 완성한 작품은 12월 1일 낙엽활극 축제에서 노란방 코너를 마련해 상영하였다. 성남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미디어 활동을 해오고 있는 늘봄과 미디어 수다방이 벌인 시도를 계기로 더 많은 캠코더들이 깨어나 소통의 역할을 해내길 기대해 본다.

사진기의 작동원리부터 천천히 배워나가는 사진 수업은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었다. 줌을 쓰는 것과 직접 발로 다가서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차이가 컸다. 줌을 쓰면 사진이나 영상이 흔들리기 쉽다. 그리고 원근감을 잘 나타내지 못한다. 그러나 직접 가까이 다가설 경우, 사진의 깊이가 더 잘 표현되고, 흔들릴 위험이 적다. 피사체를 위에서 찍느냐 아래서 찍느냐도 분위기의 차이를 보여준다. 아래서 찍을 경우 사람이 커보이게 되고, 위에서 찍으면 움츠린 듯 보인다. 사소한 차이가 만들어 내는 큰 차이에 주부들의 고개가 끄덕여졌다.

늘봄의 다른 미디어 수업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함께 감상하고, 미디어 수다방 참가자들의 작품을 만들어 보았다. 강현희씨는 부녀회의 일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김순희씨와 이선희씨, 김현경씨는 그동안의 사진작업을 편집해서 은행동 주민들의 일상을 보여주었다. 특히 부녀회 서기를 맡고 있는 강현희씨는 부녀회가 바자회를 열 때, 가을 야유회를 갈 때, 회의를 진행할 때, 언제나 캠코더를 챙겨 다녔다. 숙제 같아 부담스럽다는 말을 늘 달고 다녔지만 실제로는 가장 성실한 학생이었던 것이다.

미디어 수다방 교육 일정이 끝났음에도 늘봄의 선생님들과 미디어 수다방 참가자들은 따로 시간을 냈다. 처음 아이들 사진 찍는 법 정도나 배우겠거니 하며 수업에 참가했다가 UCC를 만들어야 한다는 수업내용을 부담스러워 해서 진행이 더뎠던 어려움도 서서히 녹기 시작했다. 주민들이 스스로 홈페이지를 활성화시키고 동네 대소사를 미디어로 기록하고 전하는 역할을 하도록 이끌어내기엔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작품을 완성해 낸 주부들의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

02

중학생 UCC

User Created Contents, UCC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입시교육의 전장터에 들어선 우리 중학생들은 실제로는 가장 활발한 네티즌이면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창작 교육에 있어서는 소외되어 있다.
아이들에게 이미 친숙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아이들이 소통을 시작할 수 있다면!
동네 곳곳에 삶과 삶을 이어주는 메신저가 될 수 있다면!
그러나 사춘기 아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일은 험난했다.
어려운 여정 끝에 펼쳐 낸 중학생 아이들의 멋쩍은 UCC 이야기.

일정
2007.10.24~11.14 매주 수, 토요일
강사
진미현(오!재미동)
참여
황재민, 김관덕, 강동준, 나영균, 홍은기, 양권주

쑥쓰럽지만, UCC입니다

사춘기였다. 호기심도 가득했고 하고 싶은 것, 궁금한 것, 놀고 싶은 것도 가득했다. 그래서 풀장에서 만큼은 '하지마라'와 '해라' 같은 명령어를 따르는 대신, 마음껏 자유롭고 싶었을 것이다. 중학생들은 사실 자발적인 관심에서가 아닌, 어른들의 이끔으로 인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예전에 동네 한 공부방에서 미디어 수업을 진행해 좋은 반응이 있었다는 한 주민의 제안으로 풀장환상은 중학생 참여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그들이 은행동 동네 이야기를 전할 메신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자유롭고 알록달록한 풀장의 분위기에 마음이 자꾸만 녹아버리는 아이들은 촬영 기법을 익히고 계획을 짜기보다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놀고만 싶어 했다. 사진은 찍는 것인지, 이대로 하다 낙오해 실패감만 안고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어린 마음이 앞섰다. 그러나 아이들은 관심이 없던 것이 아니라 단지 좀 멋쩍고 수줍었을 뿐이었다. 기웃기웃 장난 중에 눌러댄 셔터, 떠드는 중에 슬쩍 던진 한마디가 실은 관심의 표현이요, 호기심의 발동이었다. 삐까헌쩍 벼룩시장을 취재해 보라며 디카를 쥐어주자 장난기 가득했던 아이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졌다. 선생님 앞에서 사진을 찍어야 할 땐 한사코 얼굴을 가리더니 벼룩시장의 인파 속에 묻힌 사진가 역할을 맡자 요리조리 그렇게 열심일 수가 없다.

이렇게 첫 걸음을 뗀 중학생 UCC 모임은 남한산성에 기획의도를 나름대로 짠 후, 취재를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낯선 이들에게 은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며 말을 걸기도 하고 미숙한 솜씨지만 인터뷰 동영상도 찍었다. 남한산성에서 만난 한 주민이 이런 멋진 활동을 하냐며 칭찬을 하자 아이들의 얼굴엔 배시시 미소가 떠오른다. 동네 주민이 알아주니 더욱 기분이 좋아진 것이다. 인터뷰를 하기 위해 말을 걸었다가 수없이 거절도 당했지만 그런 가운데 얻은 성공은 값졌다.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랐었다며 취재를 해냈다는 사실에 뿌듯해 했다. 비록 애초의 기대만큼 활발한 동네방송국이 되지는 못했지만 작은 성공에서 오는 중학생 UCC 클럽의 성취감 만큼은 대단했다. 완성해 낸 세 편의 작품이 아이들에게 스스로 창작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되새겨 주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길 바란다.

중학생들이 만든 세 편의 UCC

커뮤니티

01 어린이 자원 활동단

02 담요극장

03 빈터파티

04 삐까헌찍 버룩시장

05 낙엽활극

01

어린이 자원활동단

풀장환상은 어린이 자원 활동단을 따로 꾸려 활동할 생각은 못했다.
그저 많은 아이들이 풀장을 찾아와 놀아주었으면 하고 바랐을 뿐이다.
그런데 아이들은 스스로 풀장에서 할 거리를 찾고 자신의 역할을 구했다.
"잠깐만 선생님 좀 도와주지 않을래?"라고 물으면, 아이들은 쪼르르 달려와
"제가 할게요!"라고 외쳤다.
매일 같이 풀장을 찾아와 청소며 풀장 꾸미기 활동이며 서로 하겠다던
귀여운 어린이 팬들이 바로 어린이 자원 활동단을 탄생시켰다.

참여

강혜인, 박정은, 이빈나, 이수정, 오지운, 최예림, 현수지, 장은아, 박지원, 정윤혜, 조은선, 이유빈, 조아라, 김광준
문성조, 박찬서, 한승희, 안진선, 이송이, 신민훈, 정하윤, 정서윤, 임지민, 최보라, 김채영, 이희아, 이슬아, 권은정
서연주, 장예원, 한효정, 이다혜, 김채연, 신은하, 류정은, 김한솔, 최지원, 김다솔, 김채영, 서주희, 장예원, 장규원

활동내용

삐까현쩍 벼룩시장 준비와 운영, 담요극장 홍보
풀장 환상 청소와 안내, 풀장이 환상이야 꾸미기 참여 등

풀장환상 어린이 특공대

2007년 9월 15일 풀장환상 오픈. 역시 가장 먼저 즐거운 냄새를 맡는 건 어린이들이다. 참가 신청서를 작성한 최초의 풀장회원도 은행초등학교 6학년 현수지, 장은아, 최예림 세 어린이였다. 풀장환상에는 특히 어린이 손님이 많았다. 풀장놀짱이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인데다 각 프로그램 진행도 어린이 중심으로 짠 것이 많았던 터였다. 어찌됐건 풀장 문을 열 때부터 닫을 때까지 아이들이 문턱이 닳게 드나들었다.

사실 풀장환상은 어린이 자원활동단을 따로 꾸려 활동할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있었다. 그저 많은 아이들이 풀장을 찾아와 놀아주었으면 하고 바랐을 뿐이다. 그런데 아이들 스스로 풀장에서 놀 거리를 찾고 자신의 역할을 구하기 시작했다. 어린이들은 풀장의 주인이 자신임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있는 듯했고, 이는 활동의 자발성으로 드러났다.

풀장놀짱에서 노는 아이들에게 '잠깐만 선생님 좀 도와주지 않을래?'라고 물으면, 아이들은 쪼르르 달려와 '제가 할게요!'라고 외쳤다. 쓰레기를 줍는 일이든,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것이든 너나 할 것 없이 쫓아 붙어 서로 돕겠다고 난리였던 귀여운 어린이들이 결국 풀장 어린이 활동단을 탄생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풀장환상은 아이들이 자치적으로 그룹을 만들어 활동할 수 있도록 자치 회의를 운영하도록 했고, 아이들에게 '풀장환상 프렌즈'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각자 이름표를 만드는 작업도 진행했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름표를 만들고 나서 예뻐서 집에 가져가겠다고 했고, 그룹을 지어 활동하면서 또래 사이에 작은 갈등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한 번 즐겁게 벌였던 퍼포먼스를 두 번째 하자고 했을 땐 지겹고 힘들다며 하기 싫어하기도 하고, 삐져서 나오지 않는 일도 있었다. 아이들은 풀장과 쉽게 친해지고, 그만큼 쉽게 떠났다.

역시 자발적 활동은 타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재미를 느낄 때 자연스럽게 분출되었다. 아이들은 재미로 몸이 달아오르면 물불 없이 신나게 덤벼든다. 낄낄마녀 복장을 하고, 온 마을을 망토로 휩쓸며 씨네풀 담요극장 홍보를 다닌 뒤에 극장에는 200명 가까운 주민들이 몰려들었다. 처음 풀장에 드럼통 난로를 들여놓던 날, 아이들을 밤이 깜깜해지도록 잔가지를 줍고 꺾으며 장작을 만들기도 했다.

풀장을 낙엽으로 채우기로 결정한 며칠 뒤, 아이들이 쓸어다 모은 낙엽들로 풀장이 가득 찼던 적도 있었다. 매일매일 풀장에 오던 아이들이 스스로 풀장에서 놀 때 필요한 규칙을 만들고, 친구들에게 규칙을 알려주기도 했다.

아이들은 갖가지 프로그램과 벼룩시장의 홍보 도우미를 자처하기도 했고, 다른 친구들과 부모님, 친척에 이르기까지 다단계식으로 풀장 마니아를 만들었다.

풀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은 모두 이 아이들의 귀여운 애정표현과 짙은 관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1월 15일, 아이들에게 그간 자신들의 활동을 돌아보게 하고 보람과 성취감을 주기 위해 어린이 자원 활동 대원 파티가 열었다. 파티를 위해 아이들은 전날부터 가면을 준비하고 신나게 춤출 노래들을 선곡해 두었다. 열정적인 모든 활동가가 한자리에 모이니 풀장이 떠나갈 듯 들썩였다. 스스로 꾸며낸 풀장의 책상이며 의자, 벽면과 계단 곳곳에 어깨가 으쓱, 아이들은 더욱 풀장 사랑이 깊어갔다. 그러나 헤어짐이 다가옴을 예감한 듯, 부쩍 풀장이 언제 문을 닫느냐는 질문이 이날부터 끊이지 않았다.

완소 귀염둥이 4학년 슬아, 송이, 승희, 진선이, 지민이, 은아, 은선이, 지원이, 풀장환상 마스코트 2학년 하윤이, 일곱 살 꼬맹이 마니아 서윤이와 지민이, 5학년은 혼자라고 속상해하던 윤혜와 6학년 수지, 은아, 예림이, 풀장에 강한 애착을 보였던 빈나, 수정이, 그리고 학원이랑 그 밖에 바쁜 일정으로 자주 풀장을 찾지는 못했지만 언제나 따뜻한 마음과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도움을 주던 수많은 친구들까지 어린이 자원 활동대원들은 풀장의 에너자이저였다. 매일 매일 풀장환상을 사건과 웃음과 감동으로 채웠던 어린이 자원 활동 대원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02

담요극장

‘풀장에서 쉬어가기, 풀장에서 하늘보기,
풀장에서 이웃보기, 풀장에서 영화보기’
담요극장은 깊어가는 가을 밤,
드럼통 난로에 집에서 가져온 고구마를 굽고,
200여명의 은행주공 이웃들이 둘러앉아
함께 가족 영화 ‘마음이…’를 관람했던
풀장환상의 소박했지만 특별했던 이벤트다.

일시
2007.10.26. 저녁 7시
상영작
‘마음이 …’ (박은형 , 오달균 감독)
참여
가족 단위 은행주공 주민 200여명

밤하늘 천막 아래 영화극장

준비된 객석이 아니어도 좋다. 대형 영사기와 음향장비가 없어도 좋다. 넓은 풀장에 폭신한 매트를 깔았으니, 밤하늘을 천막삼아 영화를 함께 보자. 씨네풀 담요극장은 씨네풀 평론 클럽의 연장활동으로, 문화 공동체 만들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계획되었다. 클럽은 영화를 선정하고 부녀회에선 고구마 굽기를 돕고 어린이 자원 활동 대원들은 홍보를 맡았다. 기획과 홍보가 문화 활동과 별개의 활동이 아니라 주체적 참여로써, 그리고 예술적 퍼포먼스로써의 체험이 될 수 있음을 풀장환상은 주목했다. 그래서 클럽이 단지 영화보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화제 준비에 참여해 주민과 함께 영화를 나누는 문화기획자가 될 수 있는 계기를 유도한 것이다. 그리고

어린이 자원 활동 또한 청소 같은 단순 활동 대신 담요극장 홍보를 맡아 거리 퍼포먼스를 벌여서 예술가 못지않은 즐거운 활동이 되도록 준비했다. 어린이 자원 활동 대원들의 '담요극장' 홍보는 특이하고(!) 특별했다. 마법 모자와 망토를 두르고 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악기를 들고 아이들은 거리에 나선 것이다.

특이한 의상 때문에 꼬마 마법사들은 동네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데 성공할 수 밖에 없었고, 깜찍한 퍼포먼스에 은행 초등학교에서 은행시장 골목까지 '담요극장'의 소문이 퍼질 수 있었다. 그 사이 어린이 자원활동 대원들은 풀장환상에 정이 어찌나 들었는지, 목이 터져라 '풀장으로 오세요!'를 외쳤다. 풀장환상 프로젝트가 시작 된지 한 달여, 풀장에 폭 빠진 '풀장 폐인'의 탄생을 예감할 수 있는 날이었다. 수차례의 의논을 거쳐 상영작은 '마음이...'로 선정되었다. 비록 씨네풀 클럽 회원들의 추천작은 아니었지만 상영회의 목적과 대상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영화를 선정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 스스로 다음 상영회를 치룰 의지와 실무를 다졌다. 비록 두 번째 상영회가 비와 추운 날씨로 취소되었지만 '낙엽활극' 축제에 클럽 회원들이 씨네풀 상영회를 여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담요극장> 에는 놀랍게도 200여명의 주민들이 가족단위로 참여했다. 게다가 많은 주민들이 고구마를 싸들고 담요와 돗자리를 빠짐없이 챙겨와 풀장 스태프들을 감동케 했다. 드럼통 난로 네 개에 불을 지피고 한 더미나 고구마가 쌓였다.
일손이 달리는 것을 눈치 빠른 주부들이 알아채고는 영화를 일찌감치 포기하고 너 나 없이 손을 거들었다.
아이들이 장난을 시작하자 아주머니들은 제 자식처럼 혼도 내고, 먼저 온 사람들은 늦게 도착한 주민들에게 안내를 도맡아 저절로 운영 스태프가 꾸려졌다.
야외상영이라 영화관 같은 고요함 대신 시끌벅적한 장터분위기가 났지만 은행주공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해 상영회를 돕고 질서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작은 프로젝터와 재활용한 천으로 만든 스크린, 관리사무소에서 빌려온 앰프로 꾸민 소박한 극장이었지만 그 열기만큼은 활활 타오르는 드럼통 난로만큼이나 뜨거웠다. 오프닝 이래로 가장 많은 주민이 참여한 영화 상영회가 끝나고 나자 풀장은 더없이 고요해 졌다.
그렇지만 자부심을 한껏 얻은 어린이 자원 활동 대원들과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으쓱해진 어깨,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풀장환상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에 풀장 사무실의 움직임은 더욱 부산해졌다.

03

빈터파티

아파트 공용면적, 동과 동 사이 빈 공터는 그냥 나무가 심어진 공간이거나
언젠가 재개발이 될 때 보상금액에 포함될 것이라는 금전적 기대 외엔
아무 의미도 기능도 없는 공간이다.
낙엽이 지고 가을 저녁노을이 물들었다.
풀장환상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116동 옆 빈터의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그리하여 은행주공 주민들에게 가을의 정취를 즐기자며,
아이들 몰래, 어른들을 위한 깜짝 파티를 제안하기에 이른다.

일시
2007.11.5 저녁 7시

장소
116동 옆 낙엽이 쌓인 빈터

참여
풀장환상에 참여해온 은행주공 주민 20여 분과 풀장환상 스태프

가을을 즐깁시다

텔레비전 속 아파트 광고엔 그랬다. 드레스를 입고 와인 잔을 든 사람들이 사교를 즐기는 공간이 아파트라고... 그러나 문화는 화려한 광고 속에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화려한 겉모습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아닌 이웃과 정을 나누는 여유와 약간의 센스였을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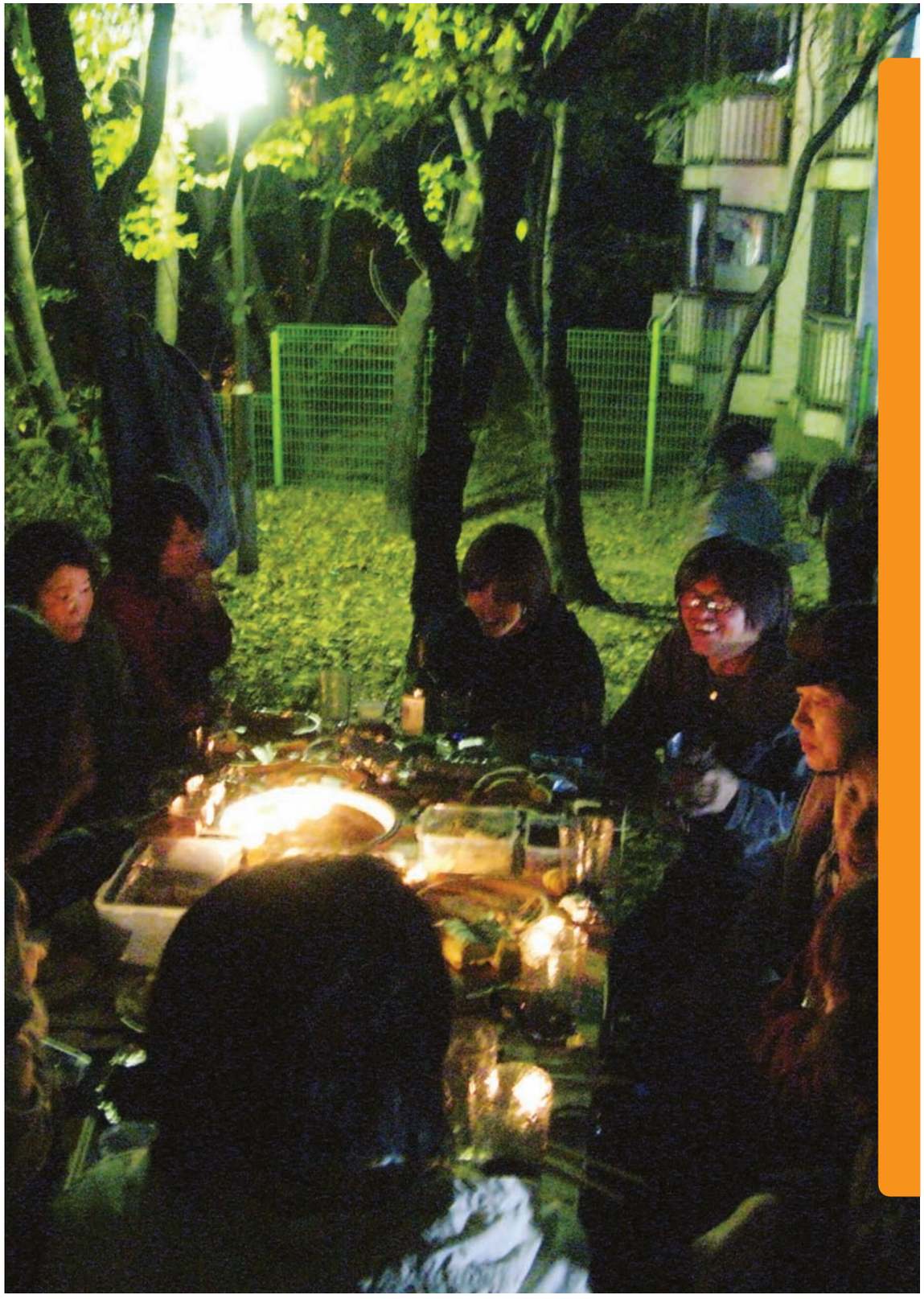
전날부터 마음이 분주했다. 바베큐로 무얼 해먹으면 좋을까, 낙엽 진 나무 그늘에 어떤 조명이 어울릴까. 음악과 영상이 흐르는 가을의 낭만을 즐기는 밤엔 또 무엇이 필요할까. 널찍한 항아리 뚜껑을 준비하고 물을 담아 그 위에 양초를 띄웠다.

알록달록한 풀장의 책상을 옮겨오고 투명한 유리잔을 준비했다. 와인을 고르고 레몬에 절인 닭 날개와 소시지를 마련하고, 동네 사람들은 저마다 조금씩 맛있는 안주를 내왔다. 밝혀주고 덥혀주는 드럼통 난로에 모닥불을 지피고 파티를 열었다. 쌀쌀한 바람을 부드러운 음악이 녹여주고 색색깔 낙엽 그늘 옆으로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만화경 영상이 하얀 페인트로 삭막했던 아파트 벽을 훌륭한 스크린으로 만들었다. 플라스틱 의자를 전등갓 삼아 조명을 설치하자 오가던 주민들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어리둥절해 했다. '뭘 파는 거에요?' 라고 묻는 사람들 때문에 파티를 준비한 스태프들은 겸연쩍은 미소를 지었다.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것, 곁에 두고도 지나쳐 버린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낯설지 않기를... 그래서 풀장환상에게는 이 야밤의 깜짝 파티가 소중할 수 밖에 없었다.

어둠이 내리고, 사는 이야기, 각자의 문화 체험 이야기, 풀장환상 운영에 관한 이야기들이 살랑이는 촛불 건너 오갔다.

'가을을 즐깁시다!' 박찬국 예술감독이 건배를 권하며 던진 말이다. 계절을 누리는 마음, 낭만을 나누는 모임, 빈터를 살리는 센스가 어우러졌던 밤...

며칠 후 풀장환상 홈페이지엔 매일 그 옆을 지날 때마다 파티의 생생함을 다시 한 번 추억하곤 한다는 덧글이 달렸다. 그 밤, 낙엽으로 바삭바삭 소리가 나는 빈터엔 진짜 가을이 두 발 밑에 한가득 깔려 있었다.



04

삐까헌쩍 벼룩시장

아이들이 벼룩시장을 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이들은 손님맞이에 가격흥정도 해보면서 일의 가치와 돈의 소중함,
기부의 기쁨도 깨닫는다. 그리고 친구들이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장난감을
갖고 놀며 어떤 문화 속에 살고 있는지 시장이라는 매개를 통해 서로
조금씩 느끼게 되었다. 열화와 같은 성원에 두 번에 걸쳐 개최된 벼룩시장은
'은행알' 이라는 지역 문화 통화를 도입해 내년 봄 주민들에 의해
자체적으로 또 다시 열릴 예정이다.

일시
1회: 2007.11.3 오후 1~4시
2회: 2007.11.17 오후2~5시

장소
풀장환상

참여
은행주공 주민과 어린이 80여명

아이들의 '헌쩍이는' 벼룩시장

버리고 다시 사는 새것 중심의 소비생활에 대한 반성과 대안이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벼룩시장에는 다양한 가치가 담겨있다. 바로 이웃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물건은 그 주인을 말해준다. 한 사람이 내어놓은 좌판 위 물건들은 엇비슷한 색과 톤을 지니고 있다. 바로 그 사람의 취향과 삶이 은연중에 드러나는 것이다. 좌판에 나온 물건들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느끼고 나누는 곳이 벼룩시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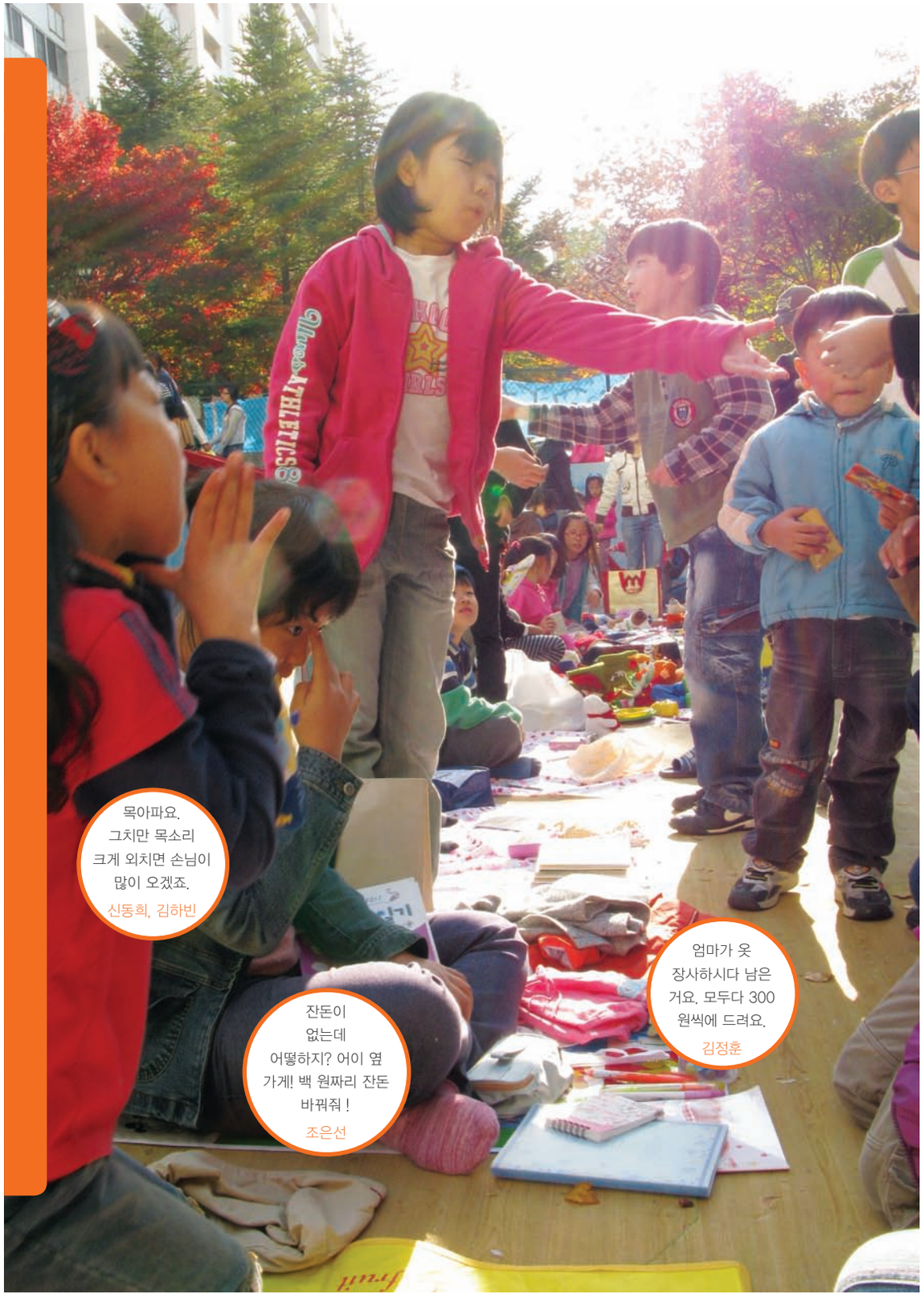
아이들이 벼룩시장에 참가한다면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가 있다. 바로 교육이다. 아이의 경제 교육을 위한 책들이 줄을 이어 출간될 정도로 아이들에 대한 경제 교육이 중요해지고 있다. 시장을 직접 체험하면서 경제관념을 체득할 수 있는 계기가 벼룩시장이다. 아이들은 자신이 팔 물건의 가치를 스스로 매기고 손님과 흥정하고 그날의 매출을 계산해야한다. 또 아이들은 자기의 물건에 대한 홍보 방법이나 손님을 대하는 태도를 절로 고민하고, 사놓고 쓰지 않는 물건에 대한 반성도 한다. 벼룩시장을 통해서 아이들은 판매자와 구매자로서 새로운 관계 맺기를 체험하고 노동자와 소비자로서의 책임도 배우게 된다.

벼룩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치는 '재미'다. 아이들의 기대가 어찌나 크던지 시작도 하기 전부터 풀장이 들썩거릴 정도였다. 벼룩시장의 제목도 짓고 준비도, 진행도, 안내도 아이들에게 맡긴다 하니 아이들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두근대는 가슴이 곁에서도 느껴질 정도였다. 한승희 어린이가 낸 '삐까뻔쩍 벼룩시장'이라는 이름에 헌 물건을 사고판다는 의미로 '헌'자를 붙여 '삐까헌쩍 벼룩시장'으로 제목이 정해졌다. 소문은 빨랐고 벼룩시장이 언제 열리냐는 아이들이 수없이 문을 두드려댄 통해 사무실은 조용할 날이 없었다.

첫 벼룩시장에 40여 팀, 두 번째 벼룩시장에도 40여 팀이 판매 신청을 했다. 원래 벼룩시장은 1회로 기획되었는데 첫 회에 참여하지 못한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한 번 더 열리길 요청해 2탄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판매자는 돗자리 보증금으로 500원을 맡기고 판매 수익금의 10%를 풀장에 기부하기로 약속을 정했다. 어린이 자원 활동가들의 풀장 사랑과 이들에 대한 스태프들의 신뢰가 쌓여 있던 터였지만 질서를 유지하고 안내하는 어린이 자원 활동가들의 활약은 놀라웠다. 아이들은 대열을 맞추어 판매자들이 자리를 깔 수 있도록 다른 친구들을 안내했고 보증금과 수익금 기부에 대한 설명도 척척 해냈다. 벼룩시장을 준비하는 일이라면 난로 땔감준비도 풀장 장식도 늘 앞장서 참여했다.

첫 벼룩시장이 이미 풀장환상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던 사람들 중심이었다면, 벼룩시장 2탄에서는 새로운 얼굴들과 가족단위 참가자들이 많았다. 특히 아이 손을 잡고 참여한 아빠, 엄마들은 아이가 '세일! 세일!'을 외치고 잔돈을 거슬러 주는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손님께 친절히 인사해야지.' 하고 예절을 가르치기도 하고 물건을 잘 보이도록 진열하게끔 하면서 적극적으로 벼룩시장을 교육의 기회로 삼는 모습이었다. 이런 교육적 효과를 홍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벼룩시장을 통해 은행 주공 주민들은 스스로 벼룩시장의 가치를 인식하면서 두 번 째 벼룩시장의 개최를 요청하고 참여했던 것이다.

잔돈이 없을 땐 옆 가게에서 바꾸어 오기도 하고, 흥정을 하다 깎아 주기도 하고, 장이 끝날 때쯤 여러 개를 묶어 할인도 하고, 그날의 매출을 장부에 정리해보기도 했던 아이들의 벼룩시장.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은 벼룩시장은 내년 봄, 주민 주도로 또다시 열릴 예정이다. 풀장환상에서 여러 클럽들이 탄생된 데 이어, 지속적으로 열릴 주민 행사도 생겨난 것이다. 여기에 성남문화재단은 '은행알' 이라고 이름 붙인 문화 통화 개념을 도입해 보려고 계획 중이다. '은행알'은 벼룩시장에서 사용할 새로운 통화 단위다. 물건을 사고 팔 때, 현금 대신 '은행알'을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 내 문화프로그램의 수강료와 강의료 대신 '은행알'을지급하고 다시 '은행알'을 벼룩시장이나 다른 문화 활동에 참여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 문화통화를 통해 문화 활동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이것이 이어져 문화 공동체로 발전하는 새로운 삐까헌쩍 벼룩시장의 내일이 기대된다.



목아파요.
그치만 목소리
크게 외치면 손님이
많이 오겠죠.
신동희, 김하빈

잔돈이
없는데
어떻하지? 어이 옆
가게! 백 원짜리 잔돈
바꿔줘 !
조은선

엄마가 옷
장사하시다 남은
거요. 모두다 300
원씩에 드려요.
김정훈

역시
장난감을
움직이려면 건전지가
필요하죠? 건전지
사세요!
조호선

연필
100원에 3개씩
묶어 팔아요.
이희아

만원주고
샀는데 천원에
드릴게요. 싸게 판다고
나쁜 물건 아녜요.
이송이

한 개도 못
팔았어요.
5장에 500원!
종류별로 200원!
박형민

가격표를
붙여둬야
사람들이 가격을 잘
알 수 있죠.
정윤혜

2천원
벌어서
2천원 다 썼어요.
한승희

폐장 시간이 다가오자 물건을 들고 돌아다니며 파는 아이들
풀장이 떠나갈 듯 '세일!, 할인!, 사세요!' 를 외친다.

수익금을 모두 기부한 백승훈 어린이

은행주공 꼬마 주민 승훈이 (은행초등학교 3학년) 는 웃을 때 꼭 다물어지는 입술과 눈웃음으로 주변 사람들까지 웃게 만들어 버린다. 풀장에 놀러오면 다른 친구들에게 양보도 잘하고 풀장 스태프들을 돕는 의젓한 친구다. 도자기 만들기, 사랑하는 주변 사람 그리기에도 참여하면서 풀장의 단골 손님이 되었다.

"번 돈 다 기부해도 좋아요!" 별것 아닌 것처럼 승훈이는 쑥스럽게 말했다

"첫 번째 벼룩시장 때, 기부하고 싶었는데 하나도 안 팔렸어요. 유희왕 카드랑 구슬 같이 어릴 때는 좋아했지만 지금은 가지고 놀지 않는 물건들을 가져왔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에게도 그 물건이 별로 흥미롭지 않았었는지 판매가 영 부진했다. 그렇지만 승훈이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 때 승훈이는 뭔가를 발견했다.

"절대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집어오면 안돼요, 인형이나 장난감 갖고 온 애들은 무지 돈을 많이 벌더라구요."

그래서 승훈이는 두 번째 벼룩시장 때, 인형과 장난감을 잔뜩 가지고 와서 1,200원을 벌었고 보자기 대여료 500원을 까지 더해 모두 풀장에 기부했다. 기부한 돈은 풀장에 짐볼을 사는 데 쓰일 것이고 아이들이 함께 공을 가지고 놀 수 있으니까 돈을 혼자서 가지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었다. 승훈이의 기특한 결정에 승훈이 어머니도, 동생 정원이도 으쓱, 많은 돈은 아니지만 벼룩시장의 경험을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었기에 기쁨 가득한 미소를 지었다.

주민생협 성남지부 아나바다 장터

1회 벼룩시장에서는 주민생협이 함께 아나바다 장터를 열었다. 2005년부터 일 년에 세 네 차례씩 지속해왔던 중고 장터를 삐까헌쩍 벼룩시장에 맞춰 개최한 것이다. 풀장 마당, 천막봉을 옷걸이 삼아 옷들을 정리하고 중고품들을 펼쳐놓자 근사한 가게가 차려졌다. 덕분에 삐까헌쩍 벼룩시장은 아이들만의 잔치가 아닌 어른들의 즐거운 장터가 될 수 있었다. 주민생협은 유기농 현미 떡을 내놓아 맛과 건강은 물론 시장구경의 재미까지 더해 주었다. 장정심 씨는 다른 곳에서 개최한 아나바다보다 더 잘된다며 주공 아파트 한가운데에서 열린 벼룩시장을 반가워했다.

"여기서도 안 팔리고 남은 물건은 어떻게 하나요?",

"남은 물건은 다시 아름다운 가게로 보내져요. 생협에서 열리는 아나바다 장터도 앞으로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주민생협 회원들의 활기찬 웃음소리에 마당이 한가득, 물건을 고르는 손님들의 손길 눈길이 모두 흥겨웠다.

앞으로 사용하게 될 은행알이란?

풀장환상, 그리고 앞으로 은행동에서 쓸 수 있는 문화통화입니다.
은행알로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만든 문화프로그램에 수강료로 지불할 수도 있고, 벼룩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지요.
자신의 특기로 강의를 하거나 벼룩시장에서 중고품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은행알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은행알은 은행주공 부녀회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풀장환상 이후에도 점핑클레이 등 문화프로그램과 동호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05

낙엽활극

남한산성 산자락에 둘러싸인 은행주공아파트의 아름다운 가을을 고대하며
풀장환상은 낙엽 쏟아지는 축제를 꿈꾸었다.
주민 동호회의 탄생과 마지막까지 공간재생에 정성을 쏟다보니
아쉽게도 가을이 떠나고 겨울이 찾아왔다.
세 달 동안 펼쳐진 풀장의 모든 환상들이 모여 안녕을 고하는 자리.
비록 낙엽은 흩어졌지만 낙엽활극에 모여든
은행주공 사람들의 마음만큼은 노랑 잎, 빨강 잎으로 하늘을 날았다.

전야제
2007.11.30 오후 8시
포크송 공연과 따끈한 정종의 밤

낙엽활극 축제
2007.12.1 오후 12시 30분~5시

본마당 프로그램

12:30~2:00	냉장고 털기_집에 있는 반찬으로 만드는 비빔밥 파티
2:00~3:00	동네 한바퀴_걷고 달리고 손잡고 하는 신나는 은행주공 투어
3:00~4:00	동네사람 그리기_투어의 마지막코스 참여벽화 그리기
4:00~5:00	개회사

전시마당

워크숍방	씨네풀극장_*2:00 트루먼 쇼 **4:00 모던 타임즈
작업공방	만들기프로젝트_책 만들기, 포크아트, 종이접기
노란방	내얼굴찾기_풀장환상, 미디어수다방, 중학생 UCC이 만든 영상상영 우리모두UCC_미디어수다방, 사진을 홈피에 올려드려요
풀장건물 둘레	각 프로그램들, 자원활동가/활동과 결과물 대공개

공연마당
국악과 락 음악으로 즐기는 신나는 무대

낙엽과 함께 축제를 벌이다

스스로 참여하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스스로 즐기는 문화 공동체를 꿈꾸는 풀장환상은 은행주공 주민들이 그 동안 풀장에서 펼쳤던 재능과 추억을 담아, 전야제까지 이틀에 걸친 축제를 벌였다. 여기에 씨네풀 클럽, 나만의 책만들기, 포크아트, 종이접기, 미디어수다방, 중학생 UCC, 점핑클레이 모임이 함께 참여해 전시와 프로그램을 꾸렸다. 은행동 무예사관학교 학생들의 무예 시범, 교사들로 이루어진 록 밴드 '자율학습'의 공연을 끝으로 풀장환상은 은행 주공 주민들과 마지막 작별을 고했다. 이웃과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는 흥이 많은 사람들, 숨겨진 재능을 펼쳐 이웃과 나누고자 자원해온 정많은 사람들이 바로 은행주공 주민들이다.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한자리에서 축제를 벌인 자리는 그래서 찡하고 짠했다. 학교가 끝나면 가방을 멘 채로 풀장부터 먼저 찾아왔던 아이들은 풀장환상의 선생님들과 스태프들 주변을 떠나지 않았다. '풀장폐인'이라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열혈이었던 한 무리의 어린이 자원활동 대원들은 정말로 언제 닫는 거냐고 끝없이 되물으며 문턱이 닳도록 사무실 문 앞을 서성였다.

낙엽활극은 아쉽게도 일정이 늦어져 낙엽이 흩날리는, 낙엽 속에서 뛰노는 최고의 축제는 아니었지만 정든 마음을 따뜻하고 뭉클하게 물들였다. 일단의 프로젝트는 끝을 맺지만 풀장환상을 통해 끝이 아닌 새로운 문화 공동체의 싹을 틔웠기에 은행주공 주민들과 풀장환상 스태프들의 가슴은 벅찼다. 은행주공 사람들은 거창하고 완벽한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닌, 나누고 살리며 만나고 발견하는 것이 문화의 시작임을 풀장환상에서 함께 체험하지 않았을까? 공공미술은 일회성 사업이 아닌 주민들의 삶을 촉촉하게 변화시키는 생명력을 지닌 작업이어야 한다. 그래서 풀장환상 프로젝트가 몇 개월의 난장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은행주공 주민들과 함께 구체적인 후속 사업을 논의되고 있다. 여러 동호회 모임이 겨우내 이어질 예정이고 문화 통화인 '은행알'로 벼룩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날도 곧 오게될 것이다.

풀장환상을 씨앗으로 은행주공아파트 문화공동체가 은행나무만큼이나 큰 아름을 이루어 자랄 새봄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오프닝 때 은행나무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며
출발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도 은행나무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낙엽활극
축제를 시작했다. 9월엔 호기심으로 길놀이를
따르던 아이들이 12월에는 어떤 마음으로
길놀이를 따랐을까. 부쩍 많아진 친밀한 얼굴들,
처음엔 어색했던 발걸음이 이제는 목적지를
미리 알고 있는 듯 자연스레 옮겨진다. 동네
한 바퀴를 휘돌며 공간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새롭게 붙인 은행주공 이름들을 알렸다.
'매미 솟는 동', '참 큰 은행나무 동', '새 웃는
동', '멋진 아까시나무 동', '딱따구리 둥지 동'.
이렇게 마을의 생태환경을 담은 이름을 따라
걷는 은행주공은 봄을 미리 맞은 듯 신선하고
상쾌했다.

관리소에서 동네 아래로 내려가는 길 벽에
우리 동네 사람들 얼굴을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 그리는 벽화 작업이 시작되었다.
풀장환상 프로그램에 몇 번 참여하지 못했던
아이들도, 이미 수성페인트로 큼직한 그림을
여러번 그려보았던 풀장페인 친구들도 이렇게
큰 벽에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눈치 챘는지 더욱
힘차게 붓을 놀렸다. 주로 엄마 아빠 얼굴을
그리긴 하지만 사랑의 멘트를 잊지 않고 남겨
보는 사람들을 훈훈하게 했다. 물감이 벽에
흐르고 실수도 있었지만, 꼭 잘 그리는 사람만이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은 털털하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물감이 옷에 묻거나
말거나 신나게 색을 입혀나갔다.

포크송 공연이 펼쳐진 전야제에는
200여명의 주민이 풀장을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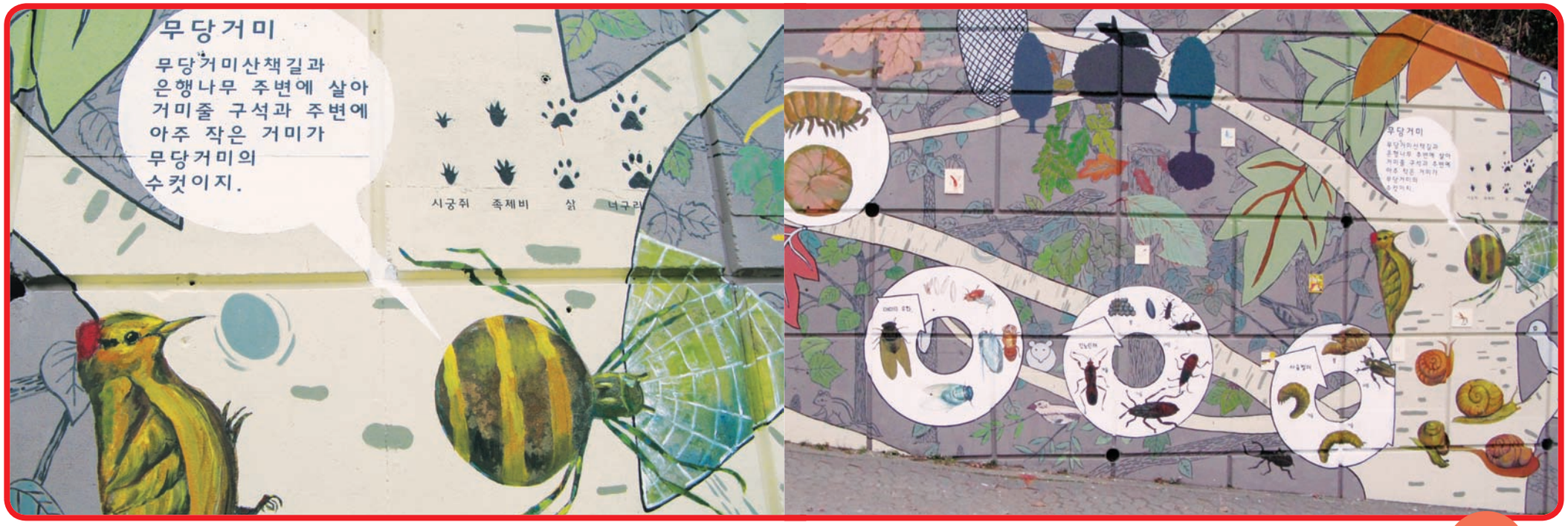
낙엽활극 축제 풀장환상의 자극과 응원으로 탄생한
은행주공아파트 문화동아리들이의 잔치였다.

공간재생

01 우리 동네 벽화

02 이정표 만들기

03 공간재생+



01

우리동네벽화

풀장환상의 야심찬 기대작,
은행주공아파트에는 3가지 벽화가 새롭게 탄생했다.
지금까지 풀장환상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은행주공의 자연과 생태, 그리고 특징을 담은 벽화 3종 세트!
주민 참여와 은행주공의 이야기로 완성된
'별별 이야기 지도', '은행주공 생태벽화', '우리 동네 얼굴그리기' 벽화에는
은행주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참여작가
김형관, 이길수, 조윤구, 최성균, 김지성,
신정원, 이정연, 김주희, 은행주공 주민과 아이들

내용
풀장 앞, 은행초등학교 길, 관리사무소 앞 벽화

첫 번째, '은행주공 생태 벽화'

풀장 바로 맞은편에는 긴 콘크리트 옹벽이 있다. 점점 생기발랄해지는 풀장에 비해 여전히 회색빛인 벽을 공간재생 팀이 그냥 두고 떠날리 있을까.
은행 주공 주민인 생태활동가 김현주 씨의 '은행주공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은행 주공의 생태환경에 대해 많은 자료를 얻게 된 차에 생태 벽화를 그려보자는 아이디어를 예술 감독님이 제안했다. 프로그램 참가자뿐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과 은행주공의 생태환경에 대한 지식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다. 무심코 지나쳤던 나무와 새, 곤충, 야생화, 오솔길... 닮은 듯 하면서도 서로 다른 모양새들을 한데 모으니 신선한 내음이 새삼스럽게 다가 왔다.
김현주씨의 자문으로 공간재생팀은 자료를 모아 은행주공아파트의 대표적인 동식물을 선정해 벽화를 디자인했다. 그리고 작가의 작업에 그치지 않기 위해 '은행주공 재발견 투어' 프로그램을 다시 개설해 주민의 참여를 더했다.
재발견투어를 다녀온 후, 아이들과 어머니들은 인상 깊었던 동식물을 비바람에 견디는 소재인 포맥스 위에 유성펜과 아크릴 물감으로 그렸고, 벽화에 이 그림들을 붙여 완성했다. 하교길, 아이들은 벽화 앞을 지나며 새 이름, 나무 이름, 곤충 이름을 되뇐다. 동네의 생태계를 벽화를 통해 배우는 것이다. 간혹 아이들 그림 중에 아는 이름이 써 있다며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사랑하는 일, 여기 생태벽화에서 자연사랑과 함께 자연스레 시작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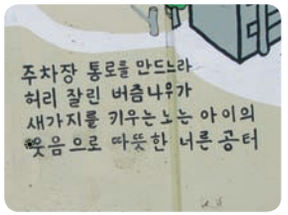
사전답사와 김현주 선생님과의 생태투어에 수차례 참여한 김형관 작가는 동식물 도감이 이렇게 재미있었는지 몰랐다며 자신이 디자인할 생태 벽화에 푹 빠져 있었다. 하나하나 잎사귀마다 이름표를 달아 벽에 붙여놓고 벽화에 들어갈 새와 곤충들을 꼼꼼히 감수 받는 작업을 거쳐 생태벽화가 탄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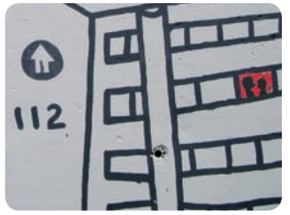
추운날씨에 언 손을 녹여가며 붓질을 한 작가들은 하교길 아이들의 질문공세 때문에 작업이 더욱 더뎌졌지만 웃음을 잃지 않고 하나하나 답해주었다. 말썽꾸러기들이 난로 앞을 떠나지 않아 아이들 돌보랴 벽화 그리랴 고생이 말이 아니었던 벽화 작가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재발견투어를 다녀온 후, 아이들과 어머니들은 인상 깊었던 동 · 식물을 비바람에 견디는 소재인 포맥스 위에 유성펜과 아크릴 물감으로 그렸고, 벽화에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붙여 완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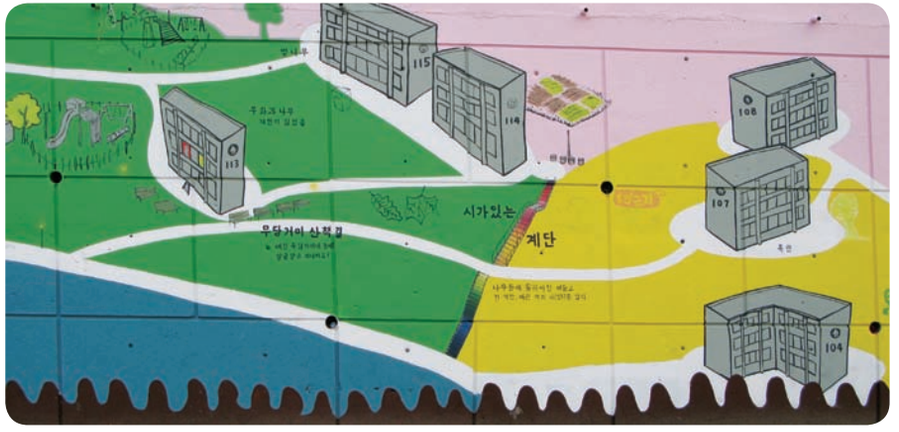
두 번째, '별별 이야기 벽화'

은행초등학교로 올라가는 길, 관리 사무소 앞에는 2002년에 은행 초등학생들이 그려놓은 벽화가 있었다. 그런데 본래의 색상이 퇴색되고 페인트가 떨어져 손길이 필요했다. 그래서 여기에 새롭게 은행주공아파트의 지도를 크게 펼치고 은행주공아파트의 숨은 이야기를 더해 아기자기한 '별별 이야기 지도' 벽화를 그렸다. 먼저 풀장환상의 새 이정표 체계에 따라 단지를 5구역으로 나눈 후 5가지의 테마 색상으로 바탕색을 칠하고 놀이터, 쉼터, 오솔길도 빠짐없이 그려 넣었다. 완성된 모습이 마치 땅속의 개미집을 연상케 해서 한 마을로 이어져 살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한다. 아이들은 지도를 따라 자기 집을 찾아보기도 하고 벽화 속, 숨은 이야기를 찾아 깔깔대며 웃기도 한다.
등하교길이 즐거워진 동네 아이들에게 인기 최고의 벽화가 바로 별별 이야기 벽화다.





2002년 은행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렸던 벽화가 낡아 손길이 필요했던 시점. 은행주공의 지도와 별별 이야기들을 담은 새 벽화가 탄생하자 아이들은 별별 이야기 하나 하나를 찾아 내기 바쁘다..



세 번째, '우리 동네 주민 얼굴 그리기'

관리사무소 내려가는 길은 우리 동네 주민 얼굴을 테마로 풀장환상의 마지막 축제 '낙엽활극' 의 프로그램의 하나로 구성되었다. 12월 1일, 오후 3시부터 은행동 아이들과 주민들이 모여 즉석에서 자신의 얼굴과 친구의 얼굴, 부모님의 얼굴을 그려 넣었다. 나름 재치 있게 특징을 잡아 낸 친구의 모습, 넥타이를 맨 아빠의 모습, 왕방울만한 눈을 가진 얼굴 등 개성만점의 그림들이 하나 둘 벽면을 채웠다. 붓질이 미숙하여 페인트가 줄줄 흘러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천진함이 생생해서 벽화 작가들은 최소한의 수정만을 가해 보완했다. 참여자 대부분이 아이들이어서 꾸밈없는 솔직함이 친근하게 와 닿는 벽화이다. 세 가지 벽화가 위치한 곳은 모두 오가는 사람이 많고, 시선이 많이 모이는 자리다. 그래서 은행주공아파트의 주민들의 교류와 소통을 꾀하고자 은행 주공의 생태와 공간, 사람의 이야기를 담아 드러나지 않았던 동네 곳곳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해 살렸다. 보여주기에 급급해 현란한 작품을 내세우는 대신, 삶의 터전에서 생겨난 이야기와 체험을 담은 벽화가 은행주공을 조금은 더 은행주공 답게 윤기내기리라 희망한다.

은행주공 아이들이 참여해 그린 우리 동네 주민 얼굴들.
보기에 따라 낙서 같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천진함이 생생해 빠뜰삐똘한 그림을 그대로 살렸다.

02

이정표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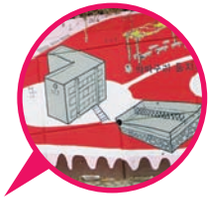
101동에서 123동까지 단지 숫자로만 불리는 우리 동네를
촉촉하게, 싱그럽게 기억할 수 없을까?
산자락 아래 새들이 즐겨 찾고 철마다 다른 자태를 뽐내는 은행주공 아파트의
생태적 특징을 담은 새로운 이정표가 탄생했다.
매미 솟는 동, 참 큰 은행나무 동, 새 웃는 동, 멋진 아까시나무 동, 그리고 딱따구리 둥지 동.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가 나에게로 와 꽃이 되듯이
은행주공아파트의 새 이름들을 부르면, 마음의 꽃들이 살아나지 않을까.

참여작가
김형관, 권용주, 최휘복
내용
은행 주공 내 새 이정표 설치

은행주공의 자연을 담은 이정표

은행주공아파트는 터가 넓어 아파트 단지 안에 버스 노선이 있을 정도다.
헌데 너무 넓은 탓일까? 처음 아파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어리둥절하기 쉽다.
그래서 은행주공아파트만의 생태적 특색을 살려
새로운 이정표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남한산성의 지형을 그대로 안고 있는 은행주공아파트는 수목이 울창하다. 산도
산이지만 단지 내 조경수들이 하늘 높이 자라 숲과 오솔길을 이룬 곳,
도심의 아파트에서 이렇게 빼어난 경관을 보기란 쉽지 않다.
그 동안 은행 주공 내에 있는 텃밭이나 오솔길, 생태적 환경을 눈 여겨 보았기에
아파트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공간 재생 프로젝트에 담을 수 없을까 고심했다.
길을 안내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동네의 생태적 특징을 담은 이름이 생기면
주민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곳의 환경을 주목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은행주공 주민이자 생태 활동가인 김현주 씨의 자문으로 아파트 곳곳의
생태적 특징을 잡아내고 클럽온 프로그램인 '은행주공 생태체험'과 별도의 답사를
거쳐 자료를 모았다.
이정표는 첫째로 동네를 찾아온 손님을 위한 안내역할을 해야 하므로
은행주공아파트를 5개 구역으로 나누어 넓은 단지 구조를 이해하도록 했다.
기존에 있던 남색 바탕의 낡은 이정표는 눈에 띄지 않을 뿐더러 위치가 모호하여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공간재생 팀은 이정표를 완전히 뒤바꿔 없애는
대신에 새로운 이정표를 통해 보완이 되도록 했다. 차길을 따라 5개의 구역으로
단지를 나누고 새 이정표를 배치하여전체를 조감할 수 있게 하고, 기존에 있던
이정표와 아파트 벽 동 표지를 통해 각 동에 접근하는 방식을 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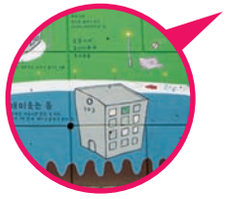
5개 구역의 새 이름은 각각의 구역에서 발견한 생태 환경의 특징을 통해
결정하였다. 101, 102, 103동을 묶어 '매미 솟는 동', 104동에서 108동까지는
'참 큰 은행나무 동', 109동에서 117동까지는 '새 웃는 동', 110동 그리고
117~118동은 '멋진 아까시나무 동', 마지막으로 121~123동은 '딱따구리 둥지
동'으로 정했다.
은행주공아파트 근처에서 수집한 폐전구를 재활용해 밤에도 불이 들어오는
이정표를 만들어 이정표의 모양새에도 특별함을 담았다.
5T두께의 투명 아크릴을 이용해 동그란 함을 만들고 폐전구를 담아 불빛의 재생과
재활용의 의미, 입체적인 모양새를 살린 것이다. 또 낮에는 형광색 글씨로, 밤이면
전력소모가 낮은 LED로 불을 밝혀 은은한 빛과 함께 각 동의 이름을 알리는 글씨를
돋보이게 했다.
은행주공의 숨겨진 이야기와 환경을 담은 새 이정표들은 이제 은행주공의 새
아이콘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가 나에게로 와 꽃이
되었다는 김춘수 시인의 시처럼, 은행 주공아파트의 새 이름들을 부르면 주민들의
마음에 동네 사랑이 꽃처럼 피어나지 않을까? 은행 주공의 자연을 담은 이정표가
훈훈한 동네 사랑, 동네 자랑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이정표 이야기

1구역
(101,102,103동)
매미 솟는 동

101동에서 103동 사이 곳곳에서 매미땅굴을 발견할 수 있다. 매미는 2년에서 7년 정도 유충 상태로 땅 속에 산다. 무심코 지나쳤던 길가에 여름을 기다리는 아기 매미들이 살고 있는 것이다. 땅에서 나무위로 매미들이 솟아오르는 곳, 그래서 이름을 '매미 솟는 동'이라 붙였다. 땅속에 있가 허물을 벗고 완전한 매미가 되기 이전의 색은 옥빛이다. 그래서 1구역의 색깔도 푸른빛이다. 생태체험 프로그램 때, 아이들은 땅 속 매미가 궁금해서 땅 구멍을 들여다 보느라 103동 앞을 떠날 줄 몰랐다. 이제 매미 구멍을 밟지 않으려는 아이들의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질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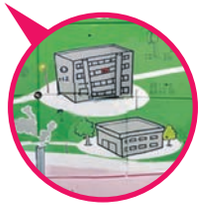


2구역
(104,105,106,107,108동)
참 큰 은행나무동

은행주공아파트에는 300년 된 은행나무가 있다. 한 그루의 나무처럼 보이지만 김현주 씨는 여러 그루의 뿌리가 엮여 거대해진 연리목이 아닐까 추측했다. 거기에 가지까지 접이 붙으면 연리지라고 부르는데 이 나무는 연리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이 은행나무 때문에 이 동네의 이름이 은행동이 되었고, 은행동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2구역은 웅장한 은행나무의 모습과 그 잎의 색상을 고려하여 '참 큰 은행나무동'이라는 이름과 그에 맞춰 노랑색을 테마 컬러로 정했다.

3구역 (109,111,112,113, 114,115,116,117동,상가)
새 웃는 동

넓은 활엽수 그늘에 맛난 열매와 곤충이 많아 새들이 많이 모인다. 곤줄박이, 청딱따구리, 뱁새라고 알려져 있는 붉은머리 오목눈이와 박새 외에도 많은 새들이 은행주공아파트에 머문다. 가끔은 새의 지저귐이 멀리까지 들리기도 한다. 그래서 '새 웃는 동'이라 명명하고, 테마 컬러로 파릇파릇한 색상과 새의 활기찬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초록색을 선정했다.



4구역
(110,풀장,118,119,120)
멋진 아까시나무동

쭉 뻗은 몸매를 자랑하며 하늘 높이 솟은 아까시나무의 향기가 감도는 동네. 흰 아까시나무 꽃이 만발한 모습 또한 장관이라고 한다. 산으로 오르는 오솔길에 있는 아까시나무는 참 큰 은행나무 못지않은 크기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은행주공 주민 뿐 만이 아니라 은행주공을 통해 남한산성에 오르는 등산객들에게 이 아까시나무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었다. 등산복 차림으로 산으로 가는 진입로가 어딘지를 묻는 이를 만난다면 이 이정표를 가리키며 아까시나무를 설명해 주면 참 좋을 것 같다.

5구역
(121,122,123동)
딱따구리 둥지 동

121동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커다란 오동나무가 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나무 중에서 잎 크기가 가장 큰 것이 오동나무다. 바닥에 떨어진 오동나무 낙엽을 치우는 것도 고될 만큼 굉장히 커서 이 길을 자주 지나는 초등학생들 모두가 기억할 정도다. 그런데 이 나무에는 청딱따구리가 뚫어 놓은 구멍이 있다. 무심코 지나쳤지만 은행주공에는 숲속 친구들이 함께 살고 있었던 것. 지금은 딱따구리가 살지 않지만 아마도 다른 새들이 둥지로 사용할 것이라 한다. 오동나무 줄기를 따라 세심히 관찰해 보아야 이 작은 구멍을 발견할 수 있다. 이제 은행 주공을 방문하는 손님들께 딱따구리 둥지와 오동나무를 소개해 보자!

03

공간재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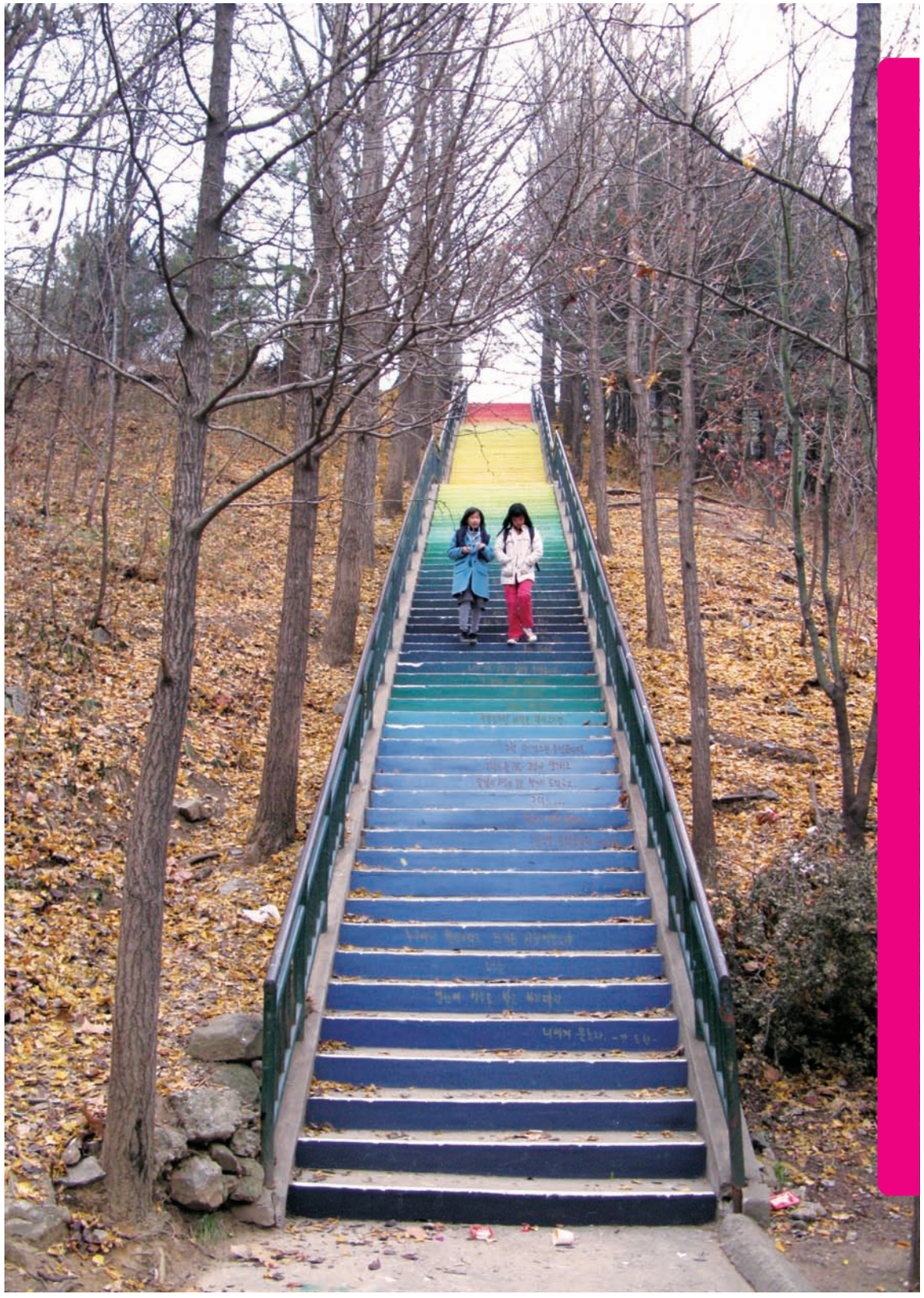
길고 긴 은행나무 터널이 드리운 은행주공아파트의 103 계단.
동네 사람들의 지름길로 애용되는 이 시멘트 계단은 길기도 하거니와
가로등이 없어 쓸쓸하고 조금은 지루했던 곳이다.
그래서 하늘로 곱게 솟은 은행나무 터널과 조응하는 무지개 빛 계단,
한 줄 한 줄 시를 읽으며 오르는 계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은행주공의 간판역할을 하는 관리소 앞 시계탑도
새 빛깔을 입고 색동으로 다시 태어났다.

참여작가
박찬국, 김형관, 이길수, 조윤구, 최성균, 김지성, 신정원, 김주희

내용
은행주공 단지 내 103 계단, 관리소 앞 시계탑 재생

103 계단

세월이 흐름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닳고 닳은 손잡이가 매력적인 103 계단.
긴 길이 때문에 '100 계단', 혹자는 '200 계단'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개수는 103개다. 긴 계단 옆으로 쭉 뻗은 가로수와 은행나무가 터널을 이루고 아침이나 저녁이나 길게 늘어진 햇살이 운치를 더하는 곳. 그러나 이용하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로등이 하나 밖에 없어 밤에는 오르내리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리고 시멘트의 잿빛 색깔도 긴 계단을 더욱 지루하게 만들고 있었다. 은행 주공의 숨겨진 명물 103 계단을 기분 좋게 오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 줄 한 줄, 시를 읽으며 오르는 계단, 저녁노을 햇살의 빛깔과 이어진 계단이 어떨까? 공간재생 팀은 103 계단에 치유와 재생의 태도로 다가가 그대로의 모습을 해체시키지 않으면서 색과 시를 입혀 재탄생시켜 보기로 했다. 박찬국 예술감독은 좋은 시를 찾아, 만나는 이들마다 추천을 부탁하고 시간이 날 때면 책과 인터넷을 뒤졌다. 아이들도 함께 읽어 좋은 시, 딱딱한 가슴을 열어줄 시를 찾아 헤맨 끝에 안도현의 '너에게 묻는다', 도종환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김춘수의 '꽃', 나짐 히크메트의 '진정한 여행'이 선택되었다. 계단 입면에 파랑, 초록, 노랑, 빨강색을 점층법으로 무지개 같이 칠해서 계단 끝 은행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의 색깔과 이었다. 그리고 그 위에 정감 있는 손 글씨로 한 줄씩 계단을 오르면서 읽을 수 있도록 시를 적었다. 밤중에 넘어져 다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계단 평면 발이 닿은 부분에는 하얀색 띠를 넣어 계단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뜻하지 않았던 계단의 변신 앞에서, 은행주공 아이들은 무지개가 떴다며 소리를 질렀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은 곧장 103 계단의 재미를 스스로 찾아 즐겼다. 한 동안 계단 앞에 멈춰 서서 눈으로만 올려보며 색깔을 구경하다가 시가 적힌 것을 곧 발견하고는 삼삼오오 소리를 맞춰 읽으며 오른다. 한 남중생은 "어? 이 시 나 아는데"라며 반가워 한다. 105동의 경비아저씨와 지나던 행인들의 칭찬도 이어졌다. 한발 한발, 걸음 맞춰 시를 읽어 올라가는 소리. 이제 은행주공아파트 사람들은 103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술과 함께 숨 쉴 것이다. 삶 속에 스민 문화와 예술, 그것이 풀장환상의 소박한 꿈이다.



시계탑

낙서와 오래된 페인트로 남루해져서
시계가 살아있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던 시계탑. 큰 키를 자랑하는
시계탑은 은행주공 관리사무소 앞,
유동인구가 많은 길목에 있어 아파트를
대표하는 간판 역할을 한다.
그러나 오래된 색상으로 인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던 터라, 여기에은행주공의
이정표 작업을 하며 선정했던 테마
컬러를 새롭게 칠하기로 했다.
은행 주공에는 나무로 만든 벤치가
여럿 있는데 장대를 연결해 만든 벤치는
여러 번 누군가 보수를 하면서
장대마다 다른 색이 들어가 스트라이프
패턴이 만들어졌다.
박찬국 예술 감독은 시간과 사람의
손길에 따라 재밌는 모양이 된
벤치를 놓치지 않고 채색의 모티브로
삼았다.
103 계단, 풀장 계단의 색색깔 띠와

기존의 벤치에서 발견한 줄무늬 까지,
자연스럽게 줄무늬가 이번 공간 재생의
모티프가 된 것이다.
동별 테마컬러를 배열해 시계탑에도
색 띠로 줄무늬를 입혔다. 옥색, 노랑,
녹색, 흰색, 붉은색으로 스트라이프
패턴을 주고 그 위에 깔끔한 글씨체로
'은행주공 아파트'를 새로 썼다.
단지 색상과 글씨를 덧입혔을 뿐인데,
그 순간 주변 분위기까지 달라졌다.
이제는 시계 역할만이 아닌
한눈에 은행주공아파트를 알리는
동네 장승같은 역할을 할 것 같다.
첫 눈에 알아볼 수는 없지만 103계단과
마찬가지로 시계탑의 색 하나,
무늬 하나에는 은행주공의 사연과
이야기들이 스며있다.
생기 있고 에너지가 솟아나는 모습으로
새롭게 탄생한 시계탑이 은행주공의
즐거운 상징물이 되기를 바란다.

풀장 환(丸)상 옆에 서서

김용익 | 경원대학교 미술 대학교수

공공미술은 무엇이어야 하겠는가? 아니 미술은 과연 무엇이어야 하겠는가?

요새 미술 시장이 활황이다. 작고, 원로작가의 작품뿐만 아니라 젊은 작가의 옥션가격이 연달아 최고치를 경신하고 신문 잡지의 미술 관련기사들은 미술시장에 대한 기사로 넘쳐난다. 일부 작가들은 입도선매식으로 작품을 제작하는가 하면 작업조수를 두는 일마져 흔한 일이 되었다. 미술교육 현장도 아연 활기를 띠고 있다. 갓 졸업하는 졸업생들을 옥션에 추천해 달라는 의뢰도 들어오고 화랑들은 새로운 젊은 작가를 발굴하여 화랑운영의 활로를 찾기 위해 좋은 예비작가를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대학 교수들에게 해댄다. 교수들도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큰소리 칠 수 있게 되었다. "열심히 그려라! 그러면 성공 한다"

그러나 과연 미술시장의 이러한 활성화로 인하여 우리의 미술 문화가 크게 발전하고 있는 것일까? 미술이 시장기능을 갖는 것 자체를 외면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마치 미술시장 기능이 미술 문화의 모두인 것처럼 몰아쳐가는 작금의 조류는 다분히 우려스럽다. 오늘날 미술 시장은 모더니즘적 미학에 근거한 작가주의와 자본주의적 시장주의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창작자로서의 작가가 산출해 놓은 예술작품을 관객 혹은 다중은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위치에 머물게 되는 구조로 되어있다. 각자의 일터에서 노동하던 다중이 여가를 위하여 예술을 소비하는 "노동사회"의 창작- 소비구조에 다름이 아니다. 이러한 구조 안에서 미술 시장의 활성화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화발전과는 거리가 멀다. 진정한 문화발전, 다중이 문화를 누리는 " 문화사회"는 예술가는 창작하고 다중은 소비하는 소비적 노동사회의 구조를 벗어나 다중이 문화 예술의 창작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적 자치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문화사회를 꿈꾼다면 미술은 무엇을 꿈꾸어야 할까? 여전히 밀실에서 홀로 고독하게 작품을 생산하고 또 미술소통의 폐쇄회로인 화랑가에 내놓아 소수의 애호가들에게 소장 되는 것을 꿈꾸어야할까? 다중은 어렵고 두려운 미술을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거나 이윽고 외면하는 이런 사태를 여전히 두고 보아야만할까?

해답은 공공미술이다.

공공미술가들은 모더니즘적 미학과 자본주의적 시장주의에 의해 후원 받고 있는 아늑한 그의 아뜰리에를 박차고 나온다. 그리고 낡은 아파트 단지의 낡은 풀장에 자리 잡는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방문하고 부녀회원들을 만난다. 그들이 무엇에 고달파하고 있고 무엇에 목말라하는지를 경청한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의논한다. 무엇을 같이 하므로써 이 낡은 아파트에서의 삶이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보람된 삶으로 느껴지게 될런지를 의논한다. 그리하여 도회적 삶의 거대한 스펙터클에 밀려 초라하게 잊혀져가는 그들 삶의 소중한 주름들이 수집되고, 기억되고, 해석된다. 잠재된 주민들의 능력을 불러낸다. 여기서 화폐로만 교환될 수 있는 것으로만 알았던 많은 정보와 교육등이 서로 거저 주고받을 수도 있는 것이란 것을 알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공공미술에 의해 주민들은 자치적 공동체를 체험하게 되고 스스로의 삶에 자긍심을 갖게 된다.
미술가들은 이러한 촉매 역할을 하고 물러난다. 미술가들이 이 아파트 공동체의 주민이 되어 계속 이런 역할을 한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긴 하겠지만 아파트와 같은 도시적 공동체에서는 그것은 사실상 이룰 수 없는 꿈에 가깝다. 공동체 안에 이러한 공공미술 활동을 자치적으로 지속 시킬 수 있는 조직을 활성화 시켜놓고 물러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름하여 "매개자로서의 미술가"이다.
요즘 문화계의 일각에서는 "문화 향수권"이란 말 대신에 "문화권" 이란 말을 쓰기시작했다. "다중의 문화 향수권 진작"등의 말이 문화사회의 모습을 적절히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 말은 다중의 문화활동은 곧 문화의 수동적 소비(향수)에 국한될 뿐이라는 사실을 은연중 암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문화권" 은 문화 향수와 더불어 자치적 문화 창작에의 참여까지도 포함된 좀 더 진취적 개념, 즉 문화사회의 구현을 지향하는 개념이다. 이번 성남 은행동 주공아파트의 "풀장환상 프로젝트"는 주민들에게 문화권을 돌려주고 매개자로서의 미술가 역할을 충실히 한 귀중한 사례로서 기억 되어야 할 것이다.

풀장환상, 그 환상의 지속을 꿈꿔야 한다!

김종길 | 미술평론가

문화공동체를 만들자!

우리는 공동체 문화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설령 그것이 유목적 삶이었다 하더라도 공동체는 최소한의 사회적 삶을 만드는 요건이었으니까 말이다. 그 한 예로 우리는 광대들의 삶을 기억할 수 있을 터이다. 그들의 삶은 운명이었지만 가난한 문화매개자로 예술의 꽃술을 혼합하지 않았던가. 마을과 마을, 지역과 지역이 고립되지 않으면서 독특한 문화를 교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길의 네트와 문화전령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광대패가 유목 공동체로서 전방위적 문화매개자였다면, 마을은 정주 공동체로서 선명한 향토성을 지닌 문화지형(공간)이었다. 오랜 세월 정주의 역사를 거친 한반도는 동일 지역 안에서도 너무나 다양한 문화를 꽃피웠다. 시와 노래, 춤에 녹아 있는 전통 문화의 고갱이를 살핀다면, 지금의 예술장르가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런 문화의 힘이 개인의 역사가 아닌 공동체의 역사에서 바로 찾을 수 있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주거문화의 변화는 이러한 공동체성을 상실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삶의 생태계가 변해 버린 당대의 상황은 과거 마을 공동체가 지닌 문화형성과 확장의지조차도 찾을 수 없는 암울한 현실이다.
아파트 설계자는 문화공동체로서 인간이 지닌 사회적 관계성을 개별 공간의 구조화에서 성취하려 한다. 한정된 땅의 면적에서 최대한의 이윤을 뽑아내야 하는 상업적 인식으로는 문화 형성의 최대 공간을 확보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문화공간이 인위성과 무관하게 자생적 공간으로 탄생되고 확장된다는 면에서 현재의 아파트 공간은 결코 문화적이지 않다.
또 하나는 옛 집이 태어나서 죽고, 다시 이어지는 초월적 시간을 내장했다면, 지금의 아파트는 불과 3, 40년 안에 재개발의 욕망으로 끝나버리는 한계적 시간에 머문다는 사실이다. 그 안에 똑 같은 삶이 있지만, 삶의 기억을 지속하느냐 혹은 지우느냐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

그 차이는 또한 문화형성이 가능한가의 질문이기도 하다.
은행동은 지금 그런 과거와 현재, 옛 것과 새 것, 기억과 지움의 틈바구니에 낀 상황을 노정한다. 문화공동체의 실험이 이런 '낀 상황'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지만, 실험의 가능성을 최대화 할 수 있었다는 면에선 훌륭했다.

풀장환상과 공공미술의 확장

공공미술이란 것이 미술형식의 온갖 사례를 조합해 그 변이를 거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러울 때가 있다. 공공성의 의미를 부르짖지만 도대체 무엇이 공공성인지 알 수 없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가!
필자는 2008년『artinculture』1월호에,

> 서경식은 최근 한겨레신문에서 이런 말을 한 바 있다. "사적 주제에서 공공적 주제로 이행할 때 그 공공성은 국가와 동의어가 아니다. 오히려 국가가 공공성을 독점케 하지 말고 자율적인 시민의식에 입각해 스스로의 공공성을 창조해야 한다."
> 그는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예술가가 "주체적인 판단이 결여된 채 국가로부터 주어진 주제에 자기 기량을 쏟아" 부은 후 현재, "사적 세계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침을 가하고 있다.
> 공공미술의 가장 큰 암적 존재는 국가다. 국가가 '공공미술추진위원회(이하 공미추)'를 조직했었다는 것만으로 21세기 한국의 공공미술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2008년 3월이면 문화관광부 산하 공미추는 문을 닫는다. 예산이 없는 공적 조직은 곧 조직이 아니다.

라고 썼다. 공공미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 없기를 바란다. 내용의 핵심은 정부주도의 공공미술추진사업이 불과 2년 만에 막을 내린 것에 대한 비판이다. 공공미술추진위원회가 그동안의 자생적 공공미술을 수면 위로 끌어 올렸다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이제 그 '자생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는 것은 분명히 비판받아야 한다. 1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 '생활개선' 이라는 명목의 공공미술을 펼친 정부의 노력은 가상하다. 그러나 공공미술의 환상을 곧바로 빈털터리 현실로 내모는 작금의 상황을 무어라 얘기할 수 있단 말인가!
공공미술추진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

<풀장환상>은 공공미술이 단지 미술의 형식으로 규정될 수 있는 협소한 틀이 아님을 잘 보여준다. 차라리 그것은 '공동체예술'이라 할 터인데, 왜냐하면 그 논의의 구조에서만 가능한 의미들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린 벽화 따위로 미술의 범주로 한정하려 한다면 이것은 큰 오산이다. 그런 면에서 <풀장환상>은 공공미술의 의미를 확장한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공간과 장소의 의미에서 기존의 '공공성' 을 재맥락화하고 다양한 경계의 문화예술을 프로그램에 녹여내어 '탈미술' 을 지향했다는 것은 사례조합형 공공미술이 보여준 최근의 한계를 훌쩍 뛰어 넘는다. <풀장환상>팀은 기획안에서 이미 탁월한 준비성을 드러냈었다. 은행동 일대를 직접 답사한 뒤 개별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여러 전문가 협업체계를 구상했다. 여기에는 미술전문가, 문화예술교육전문가, 생태전문가, 프로그래머 등이 참여했고, 각 프로그램의 결과치를 기대효과에서 마감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공공미술'이 될 수 있는 지역민 기획자 양성을 포함시켰다. 참여 지역민이 사업 후 자발적 기획자로 클 수 있도록 장치한 프로그램이었단 얘기다. 그리고 우린 <풀장환상>팀이 구상한 문화공간론의 뼈대를 살필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푸 투안의 문화공간론에서 그 핵심의 단초를 발견한다.[1)]

이-푸 투안은 인간의 육체가 공간감과 장소감을 형성하는 토대라고 간주한다. 따라서 그는 인간의 생물학적 사실들에서 기인하는 공간과 장소의 경험을 기술하고, 인간이 공간과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조직하는 방식을 이해하고자 한다.

사업이 전개된 은행동 주공아파트 단지는 남한산성이 있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잇닿아 있다. 또한 최근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 용적율과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1) 이-푸 투안의 『공간과 장소』(대윤,1999)의 글을 인용하여 대입한다. 이러한 비교 대입은 이미 경기문화재단의 공간재생 프로젝트 평가에서 사용한바 있다. 공간재생프로젝트는 '은행동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재생'이라는 맥락에서 비슷한 측면을 가진다. 그러나 경기문화재단의 공간재생은 그야말로 빈 공간의 재생일 뿐 사회공동체 '재생-만들기' 와는 구별된다.

녹지율이 크다. 건물이 상대적으로 오래된 만큼 낙후되었다는 것 빼고는 장점이 많은 곳이다. 반면, 서울과 경기도의 접경지로서 일종의 '서울권'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 경기도민은 새로운 투자환경으로 도래하고 있는 이 공간지형이 더 많은 자본으로 회수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사이 두 배의 가격으로 치솟은 아파트가는 그런 재개발 의욕을 부추긴다.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거대한 은행나무로 인해 '은행동'이란 이름이 생겼고, 재개발로 인해 녹지공간이 사라질 것이라는 복잡한 생각들은 '자본화'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진다.
공간감과 장소감의 형성은 <풀장환상>이 재생하려 한 문화공동체의 본질이기도 했다. 오래되었다고는 하나 단지 내 주민간의 공간·장소감의 형성은 거의 전무했다. 이 곳 주민들은 주거외의 문화적 삶터로서 아파트를 이해하고 있지 않았다. 실제로 이곳에서 사는 많은 이들의 목소리는 재개발이 얼마나 더 많은 부의 성취를 가져다 줄 것인가였다. 인간의 육체가 공간감과 장소감을 형성하는 토대라는 이-푸 투안의 개념은 그런 거대 욕망 앞에서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물론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풀장환상>의 '은행주공 생태체험'과 '옛 해학 이야기', '미디어 수다방'과 같은 프로그램은 바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삶터를 재인식하게 함으로써 잃어버린 감각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었다. 인간 또한 하나의 생물이기에 생태적 감각의 회복은 쉽게 살아날 수 있다. 자발적 지속과 확산이 힘들뿐.

공간은 움직임이며, 개방이며, 자유이며, 위협이다. 장소는 정지이며, 개인들이 부여하는 가치들의 안식처이며, 안전과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고요한 중심이다. 인간은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며,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미지의 공간은 친밀한 장소로 바뀐다. 즉 낯설은 추상적 공간(abstract space)은 의미로 가득찬 구체적 장소(concrete place)가 된다.

풀장이 이미 증언하고 있듯 그들의 삶은 어쩌면 모두가 추상이었다. 아파트 주위의

숲조차도 낯설고 먼 곳이었으며, 날마다 지나치는 방치된 풀장은 그 흉물스런 풍경에 주눅들었으리라. 과거 어느 때에는 너무도 친밀하여 애용되던 공간들이 점차 빛을 발하여 낯설어 지기 시작했을 터이고, 사교육에 길들어진 아이들의 놀이문화는 일순간 자취를 감추지 않았겠는가. 뿐만 아니라 먹고살기에 바쁜 어른들조차도 눈 돌릴 틈 없이 살아가고.
풀장, "이 작은 공간은 참으로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곳은 정착지가 아니라 유동지 혹은 경계지로 작동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의 경계에서 혹자는 좌우를 가리키지만, 문화는 결코 좌우로 갈릴 수 없는 영원한 경계지다. 이-푸 투안이 직시했듯이 공간과 장소의 차이는 '개방과 자유' '안식과 고요한 중심'에서 드러난다. 풀장은 투안의 공간개념과 일치한다. 그곳은 움직임이며, 개방이며, 자유이며, 위협이다. 우린 아직 이 미지의 공간을 떠돈다. 새로운 유형의 문화가 만나고, 충돌해야 하며, 끊임없이 사람의 그림자가 축적되어야 한다. 이곳이 하나의 장소로 되기까지 '통합'의 마음들이 모여야 한다. 행사가 치러진 모든 날, 사람들은 이곳이 의미로 채워지는 구체적 장소의 면모를 확인했다. 만남과 소통의 장이었던 '풀장'이 어둡고 음습한 공간으로 돌변했던 것을 상기하면, 이 활기에 찬 공간이 새롭게 재생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다. 그러나 그 장소성은 '풀장'의 만남과 소통이 아닌 '예술'의 만남과 소통이었다. 숨은 자들의 낮은 독백과 속닥거림이 아닌 열린 자들의 명료한 언어와 몸짓이었다."

인간은 신체의 긴밀한 경험을 통하여 그리고 타인과의 긴밀한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생물학적 욕구와 사회적 관계에 적합하고, 또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공간을 창조한다. (…) 신체는 생명체이고 공간은 인간의 판단에 따라 해석된 공간이다.

이제 풀장이 혹은 숲이 완전한 창조 공간으로 자리 잡으려면 '관계-공간'이 되어야 한다. 공간의 사회적 관계성은 은행동 주공아파트 단지가 지속적인 삶터로 살아가려는 순간 쉴 새 없이 발생한다. 공간은 사회적 생태계를 형성하며,

운영주체에 의해 늘 변화된 해석을 던진다. 즉 '인간의 판단에 따라 해석된 공간'은 이 단지의 경우 고정된 해석이 아니란 점이다.
그런데 그런 해석과 바람이 과연 희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는 의문이다. 사실 이 사업의 성패는 성남문화재단과 <풀장환상>팀에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은행동 주민 스스로에게 있다. 참여자들은 많은 것을 느끼고 체험했을 터이다. 새로운 감각의 회복과 공동체 문화의 필요성, 더불어 인간학적 측면에서 고립이 아닌 서로간의 상상연대가 만들어내는 치유로서의 문화까지도. 신체의 긴밀한 경험이 사회적 관계에 얼마나 적합한 것인지 알았다면, 자신들의 삶이 형성되는 그 작은 아파트 단지가 너무도 거대한 생태계임을 인식해야 한다.

공공미술의 옷장을 열어라!

공공미술은 미술이 아니다. 공공미술은 문화공간론이며 인류학이고, 생태공동체의 숨결이다. <풀장환상>은 그동안의 공공미술이 보여주지 못한 한계지형을 확장시켰다. 단지 내 숲의 생태를 담벼락 벽화로 그려냈고, 은행나무에서 시작된 은행동의 유래를 기억의 역사로 복원했으며, 풀장을 다양한 방식의 문화공간으로 변이시켰다. 놀이터로 영화상영장으로 댄스, 미디어룸, 평론클럽으로 말이다. 단 몇 개월 동안 전개된 이 사업의 프로그램 내용을 어떻게 다 열거 할 수 있을까?
이제 공공미술의 옷장을 열어야 한다. 춘하추동, 남녀노소가 한 두레 한 마당으로 어울리는 예술의 난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거기에 문화의 씨알들이 날아와 터져서 이종교합 아니 다종교합의 문화로 번져나가야 한다. <풀장환상>은 끝났지만, 그 환상의 주체는 지역이 되어 되살아 나야 한다. 그 꿈의 현실화만이 지속가능한 공공미술의 미래다.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나눔이 즐거운 ART-POOL 풀장환상

주최 성남문화재단
예술감독 박찬국

후원 성남시
협력 은행주공아파트 부녀회
은행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은행2동 사무소
은행2동 주민자치위원회
은행2동 통장협의회
책마을 어린이 문고

매니저 박연숙
코디네이터 남미영
인턴 김주리, 김주희
도큐멘터 도호연
기획도움 김용택, 송수연, 임재춘
자원활동 이정연, 이지성, 박효선

나의 즐거운 ArtPool
풀
장
丸
환
상